

#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17  
2025. 3 ~ 2026. 2

CREATE  
FUTURE  
TOGETHER

KYUNG HEE UNIVERSITY





# CONTENTS

- 02 ▶ **총장 인사말**
- 04 ▶ **숫자로 보는 경희**
- 06 ▶ **경희의 도전과 성취**
- 14 ▶ **기부 리포트**
  - 2025학년도 기부금 현황
  - 2025학년도 기부금 모금 현황
  - 2025학년도 기금 사용 현황
- 16 ▶ **기부 스토리**
  -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순간
  - 당신의 나눔에 답합니다
  -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 44 ▶ **기부자 명단**
  -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 2025학년도 기부자
  - 경희 후원의 집
  - 아레테클럽 교원
- 58 ▶ **쿠밀리(KHUmily) 소개**
- 60 ▶ **주요 모금 캠페인 소개**
  - 공과대학 ANNEX 건립 특별기금
  - 토닥토닥 든든밥상
  - K-Stipend 동행 캠페인
- 65 ▶ **기부자 예우**
  -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 네이밍 예우
  - 세제 혜택
  -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 69 ▶ **기부 참여 안내**

# 미래 경희의 마중물이 되는 사계절 동행의 아름다움

경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기부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 여러분의 한마음 한뜻은 경희의 교육·연구·봉사 현장 곳곳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은 미래 경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경희는 개교 77주년을 맞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일군 지난 76년은, 처절한 시대의 폐허 속에서도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희망을 붙들고 학문과 평화를 실천해온 경희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경희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아픔을 품고도 미래를 상상했던 선배들의 용기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숫자로만 남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빛이자, 경희 교육의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드는 생명력입니다.

2025년 개교 76주년을 전후해 경희는 '미래 대학'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여러 도약을 이뤘습니다. 4월 ESG 실천주간과 플로깅, 탄소절감 선포식은 작은 실천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웠습니다. 5월 제주 해변에서 펼쳐진 클린업 활동은 자연 앞에서 배우는 겸손과 공동체적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70주년을 맞은 약학대학 기념식에서는 14억 원 이상의 발전기금이 약정되며 "더 좋은 약을 넘어 더 좋은 지성"이라는 약대의 사명이 다시 한 번 힘을 얻었습니다. '식시일반'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주신 마음, 공학관 분관 건립을 위한 기부 약정, 호텔관광대학 50주년 행사에서 이어진 모교 사랑 등 모든 장면에는 '함께 만든 대학, 함께 짓는 미래'라는 경희의 오래된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2월 '기부자 감사의 밤'에서는 기부자와 장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 해 동안 이어진 기부는 그 형태와 이유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부의 마음에는 “나보다 우리”, “오늘보다 내일”, “나의 배움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이라는 조용한 헌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초학 장학금과 체육대학 강의실 네이밍의 지속적 기부, 차후영 동문의 40억 원 약정과 약학·의과학 발전을 향한 신념, 방송 장비 현물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손끝에 미래를 쥐여주신 기업의 마음.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90대 어르신이 신문에 정성스레 써서 건네신 5천만 원의 장학금은 우리 모두에게 기부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사랑’은 수많은 학생에게 큰 울림을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공학·체육·호텔경영·약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어진 기부와 네이밍 현판식, 외국인 전임교원의 첫 아레테클럽 가입, 공학관 ANNEX 착공을 위한 발전기금 약정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성은 경희의 터를 더 든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결국 미래 경희의 가능성을 더욱 단단히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기부자 여러분, 총장으로서 저는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무겁고도 숭고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희의 구성원 모두는 여러분의 신뢰를 마음 깊이 새기며, ‘대학다운 미래 대학’을 향한 로드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음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아직 이름 없는 젊은 인재들에게 희망을 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한 학생의 꿈을 지키며, 인류가 나아갈 길을 넓히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스며든 장학



금과 발전기금은 경희 사자(獅子)들이 세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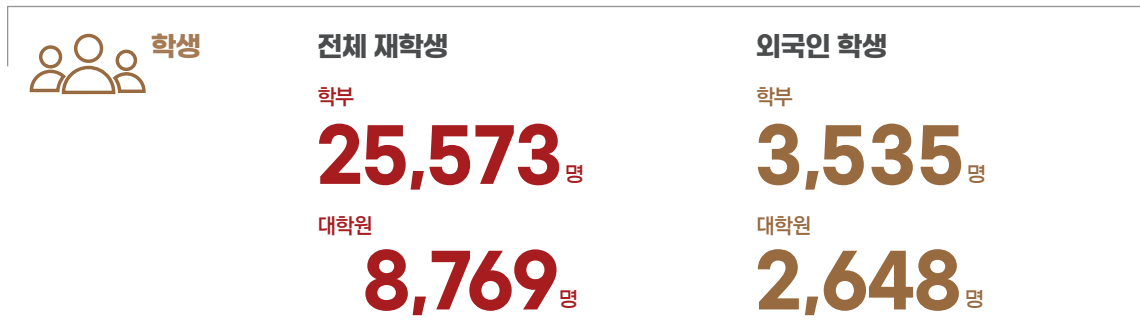
앞으로도 경희가 더 넓은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따뜻한 마중물’이야말로 경희의 다음 100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총장 김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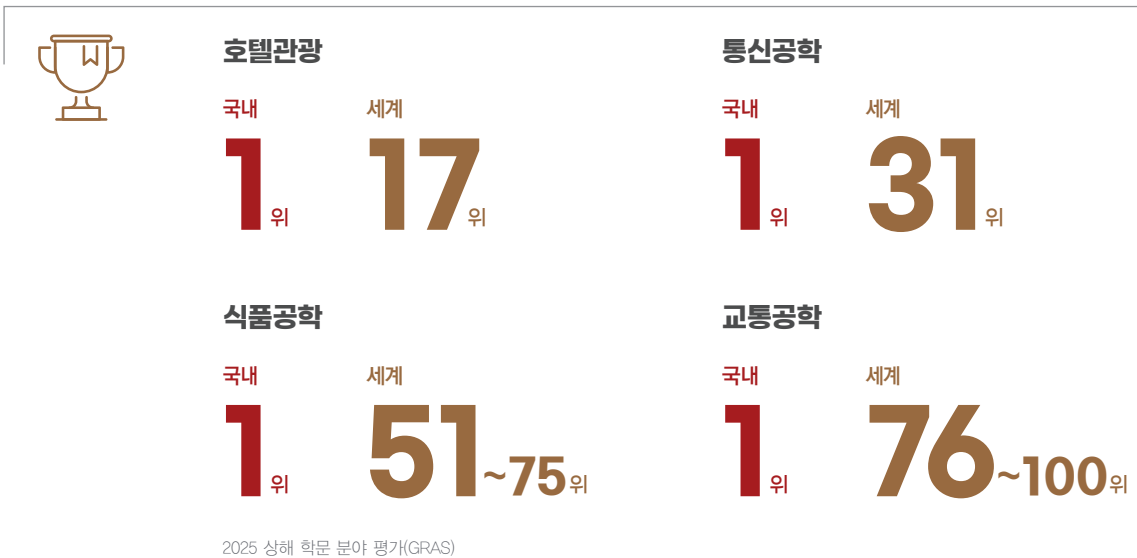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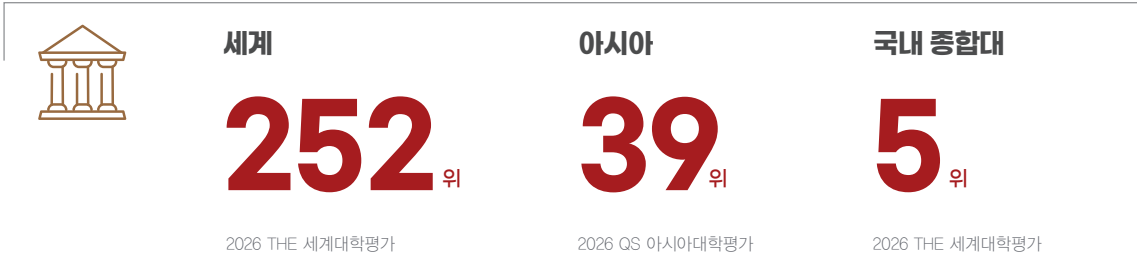
#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경희

## 대학 현황



# 도전과 창조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 대학 평가



# ‘지속 가능한 미래 대학’으로 도약하는 경희

경희는 교육·연구·행정·조직문화 전반에서 미래를 향한 혁신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여러 대학평가에서 입증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기여도를 반영하는 ‘THE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19위·세계 사립대 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주요 잣대로 삼는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우주과학, 바이오헬스, 양자과학, 첨단소재, 인공지능, 인류문명 등 6대 중점분야에서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경희는 미래 사회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비약적 도약, 퀀텀 리프(Quantum Leap)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19위·세계 사립대 1위

### 11개 분야 세계 50위 내 진입 최초로 세계 상위 1% 이내 올라

경희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5 THE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19위·세계 사립대 1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평가는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주요 평가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기여도를 반영해 인류와 문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2019년 처음 실시된 평가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한 경희는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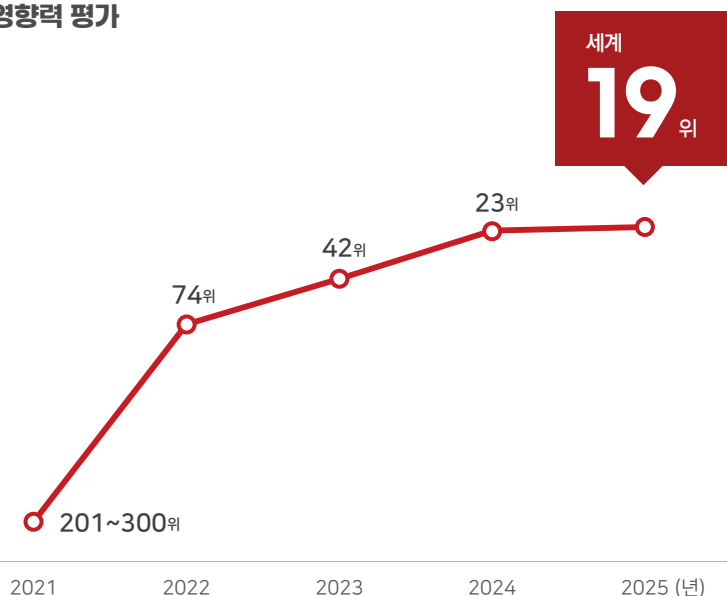
이번 평가에서 경희는 SDGs 17개 전 목표에서 순위권에 오르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아 해소(SDG 2) 세계 6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8) 세계 8위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SDG 11) 세계 13위 △빈곤 종식(SDG 1) 세계 15위 △평화·정의·효과적인 제도(SDG 16) 세계 18위 △산업·혁신·인프라(SDG 9) 세계 19위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세계 30위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SDG 12) 세계 34위 △건강과 복지(SDG 3) 세계 37위 △육상 생태계 보전(SDG 15) 세계 47위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 17) 세계 50위 등 11개 목표에서 세계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경희는 고등교육 기관의 공공성에 일찍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공공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세계 교육·학술기관, 국제기구, NGO,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는 연구·학습·실천 과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고등교육 기관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아래 세계시민의식과 공공성, 실천성을 중시하는 교육·연구·실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경희 구성원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경희는 고등교육 기관에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THE 대학 영향력 평가



## 2026 THE 세계대학평가 '역대 최고' 순위 달성

### 전 영역 고른 성장세, 연구 질적 수준 반영하는 '피인용' 성과 두드러져

경희가 '2026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252위·국내 종합대학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세계 순위는 33계단 상승했으며, 국내 종합대학 순위도 1계단 올랐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THE 세계대학평가는 △피인용 △연구 △교육 △국제화 △산학협력 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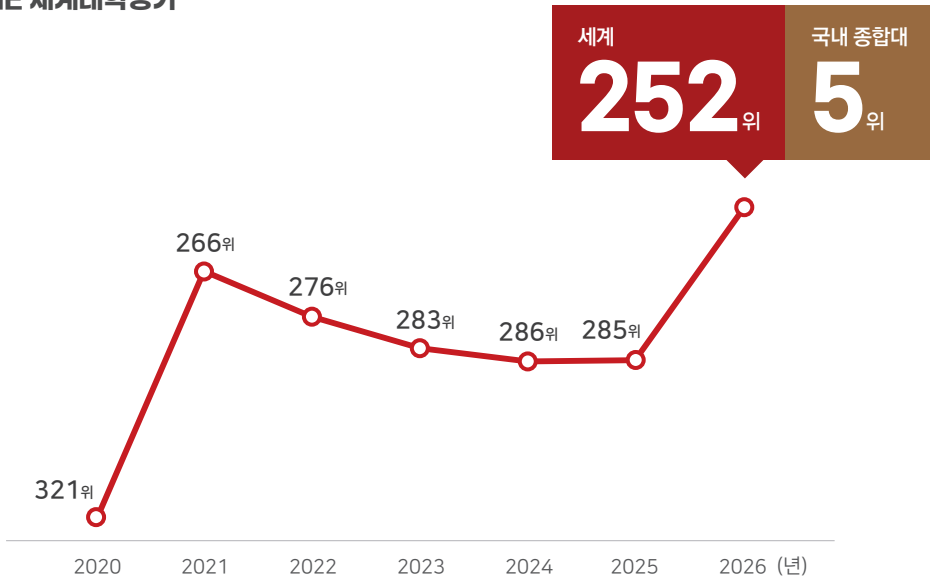
경희는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구 역량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는 학문적 탁월성에 더해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다운 미래 대학'을 추구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는 2009년 개교 60주년 이후 '제2의 도약'을 위해 우수 교원 확보를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습니

다. 그 일환으로 석학 초빙 제도인 ES·IS(Eminent Scholar·International Scholar)를 신설해 세계적 학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학문과 배움의 국제화를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 학자를 상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피인용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논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FWCI 평균은 1.42로, 국내 5위를 기록했습니다. FWCI 1.42는 경희의 논문이 세계 평균 대비 42% 더 많이 인용됐다는 의미입니다. 상위 25% 논문의 FWCI 평균은 1.54로, 국내 3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공동연구 실적도 증가하며 국내 3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희는 연구 지원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구성원의 연구를 돕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AI) 시대의 고등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근 설립한 IR(Institute Research) 센터를 통해 데이터 중심의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경희는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며 교육·연구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고, 구성원의 긍지와 포부를 고양할 수 있는 제도·문화·실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세계대학평가



## 세계 상위 1% 연구자(HCR) 4명 선정

### 국내 종합사립대 3위,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내 대학 최다 HCR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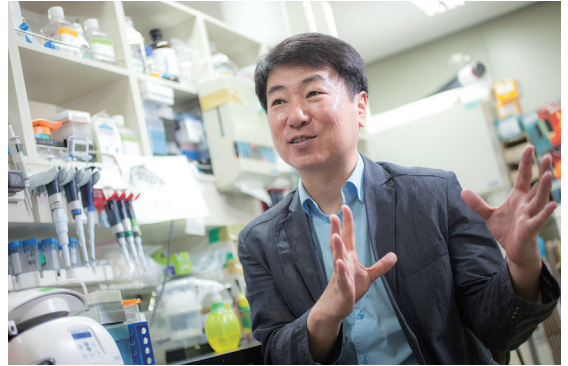
스마트관광원 구철모·정남호 교수, 생물학과 배진우 교수, 컴퓨터공학부 홍충선 교황명예교수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선정한 '2025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 HCR)'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HCR 4명은 국내 종합사립대 3위에 해당합니다.

경희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 분야에서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HCR을 배출했습니다. 구철모 교수와 정남호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구 교수는 '스마트관광'의 개념과 범위를 세계 최초로 정의한 연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관광·호스피탈리티 교육 플랫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정보기술 관리, 관광 행동, 심리, 관광 정보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국내외 학술지에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배진우 교수는 전통적 범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차 분야(Cross-Field)에 선정됐습니다. 그는 비만과 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장내미생물을 밝혀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연구 영역을 바이러스 생태학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홍충선 교수는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홍 교수는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자원 관리 및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 기업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는 매년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세계 상위 2% 연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논문 인용 수, H-지수, 공동저자 보정 인용지수 등을 종합해 연구자의 생애 및 최근 1년간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이 평가에



(사진 위부터) 정남호·구철모 교수, 배진우 교수, 홍충선 교수

서 경희는 2025년, 생애 부분 62명, 최근 1년 부분 1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희는 HCR과 세계 2% 연구자 평가에서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연구자를 배출하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교원 모두 경희의 연구 지원 정책 아래 세계 석학으로 성장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경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 지원 정책이 구성원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래 의학을 향한 혁신 '경희 의료'의 도약

###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연구 중심 병원 등 평가에서 위상 재확인

'질병 없는 인류사회', 경희가 1971년 경희의료원을 개원하며 설정한 목표입니다. 경희는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류 보편을 위한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명은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경희 의료기관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개원했고, 2018년에는 후마니타스암병원을 설립하며 현재의 경희의료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역사의 흐름 위에 경희 의료기관은 내외부 환경 변화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찰하며, 환자 중심·연구 중심·혁신 중심 체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 의학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정신적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의료질 평가'에서 경희대병원은 전국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가운데 최고 등급인 '1-가'를 획득했고, 강동경희대병원은 종합병원 중 최고 등급인 '1-나'를 받았습니다. 각각 상급종합병원 상위 2%, 종합병원 상위 1%의 성취로,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진료 강화, 필수의료 확대, 맞춤형 방사선 암 치료기 도입 등 진료 시스템 혁신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경희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연구 중심 병원'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장기 연구 전략을 기획·추진하며 미래 의학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혁신 노력은 국제 평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과 '2026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에서 정형외과는 세계 23위·아시아·태평양 5위, 내분비내과는 세계 28위·아시아·태평양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모두 '사람 중심의 혁신'이라는 철학에서 비롯했습니다. 경희 의료기관은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을 주는 진료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를 넘어 인간 삶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경희 의료기관은 경희의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진료·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의학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 위기의 시대, 평화와 행성 의식을 묻다

###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Peace BAR Festival 특별대담, 라운드테이블 등 개최

“우리는 벼랑에 서 있습니다.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라는 화두가 더 이상 생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인류 사회는 고전적 인간 현실의 사유 체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실존’의 또 다른 지평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전체에 이로운 것은 내게도 좋다’는 ‘전일사관’의 대전제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행성 의식’의 지구적 확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길이 파국을 막을 마지막 수단일지 모릅니다.”

2025년 9월 19일 오전 열린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의 Peace BAR Festival 특별대담에서 경희학원 이사장 조인원 박사(정치학)는 이 같은 절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담에 함께한 세계 석학들은 ‘인류 의식의 행성적 전환’을 문

명 전환의 출발점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행성 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행성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디 엘더스, 로마클럽, 유엔, 라즐로연구소, 하벨도서관, 오카야마대, 어스 차터 인터내셔널 등 국제기구와 학술·교육 기관, 시민사회가 모여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항배’를 주제로 문명 전환을 구체화할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은 라운드테이블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현실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식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긴 여정이지만, 급박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장이 하벨 다이얼로그에서 제안한 ‘제다이 위원회(Jedi Council)’ 구상을 언급하며, “의지와 능력, 그리고 진보적 사고를 지닌 핵심 그룹이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핵심 그룹을 결성하고, 행성적 연대와 협력을 확장해 나갔으면 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 해외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베트남 동문회 통해 첫발 내디뎌

### 호찌민서 ‘베트남 동문회’, ‘유학생 동문회’ 등 개최

2025년 2월 말,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희인들이 호찌민에 모였습니다. 김종복 대외부총장과 대외협력처 직원들은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해 동문들과 만났습니다. 2월 26일에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동문을, 27일에는 한국에서 유학한 베트남인 동문을 위한 동문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해외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날 행사에서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팬데믹 이후 위축된 해외 동문 네트워크를 재건하려 합니다.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의 동문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경희동문회 송우석 회장(영어영문학과 92학번)은 “동문회 결성 초기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지금은 여러 동문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동문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지속적인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열린 베트남인 동문을 위한 행사는 본국에서 경희의 이름으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국어국문학, 미디어학, 경영학, 화학공학,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마친 동문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학교수, 대기업 직원, IT 기업 연구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경희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경희가족 정신을 잊지 않고 대학과 동문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대학 역시 해외에 있는 유학생 동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라며 모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환레민(MINH XUAN NGUYEN) 부회장(식물분자시스템바이오택학과 석사)은 “모교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자리를 마련해 준 데 감사드립니다. 모교와 동문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이번 동문회 활동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경희동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외협력처는 앞으로도 해외 동문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경희동문의 결속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동문과 함께 여는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 북미주 동문회, 미원평화상 제정 뜻 되새기며 경희 정신 공유

북미주 연합 동문회가 2025년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제22차 정기총회와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린 정기총회에는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뉴욕, 워싱턴DC, 시애틀 등 북미주 전역에서 모인 동문회 회장단과 동문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북미주 동문회는 미원평화상 후원재단의 주축입니다. 이 재단은 미원평화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세계평화 후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원평화상 제정을 회고하며 경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를 통해 모교와 동문이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을 모색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잠시 소원해졌던 동문 간 교류와 모교와의 유대가 활기를 되찾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북미주 동문들은 2001년, 모교가 인류의 미래를 향한 문화세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희국제재단(KHIF)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2022년 경희학원에 미원평화상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사회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문화세계의 창조'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희학원은 동문들의 뜻을 존중해 2024년 미원평화상을 제정하고 제1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상을 통해 설립자의 뜻과 공적을 기리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경희학원은 이번 행사에 앞서 경희 정신이 깃든 사자와 목련을 형상화한 기념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경희 태동의 열과 정신을 상징하는 이 조각상은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남가주 동문팀에 수여됐습니다. 기념 조각상은 경희의 상징 '웃는 사자'와 교화 '목련'을 품고 있습니다. 조각상은 2년마다 열리는 골프대회의 우승팀 명을 새겨 전승됩니다. 노상석 미원평화상 후원재단 이사장(경영학과 66학번)은 "이 귀중한 조각상을 보관하는 영예를 누리게 돼 영광입니다"라며, 미원평화상 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동문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북미주 동문들은 미원평화상 제정을 제안한 데 이어 지속적인 후원으로 그 길의 동반자를 자임해 왔습니다. 동문들의 성원과 격려, 미래로의 책임 의식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기부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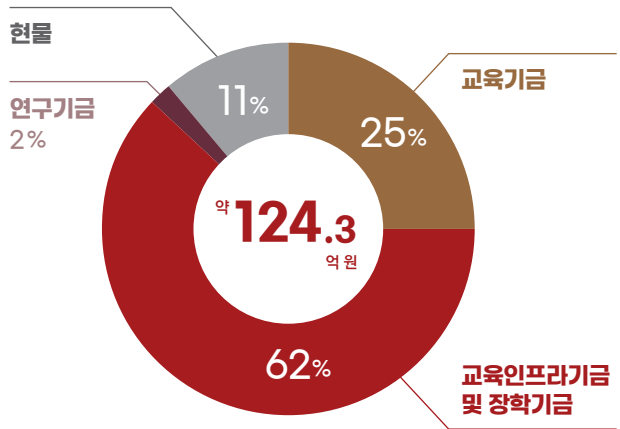
## 2025학년도 기부금 현황

<b>기부금 총액</b> 	<b>약정</b> 약 <b>116.7</b> 억 원	<b>입금</b> 약 <b>110.6</b> 억 원	<b>신규 약정 건수</b> <b>2,464</b> 건
--	---------------------------------	---------------------------------	-----------------------------------

<b>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대학(원)</b> 	<b>서울캠퍼스</b>	<b>국제캠퍼스</b>
	약학대학	공과대학
	약 <b>5억 8천만 원</b>	약 <b>4억 4천만 원</b>
	<b>치과대학</b>	<b>체육대학/체육대학원</b>
	약 <b>4억 4천만 원</b>	약 <b>1억 2천만 원</b>

## 2025학년도 기부금 모금 현황

현금	교육기금	3,071,193,665원
	교육인프라기금 및 장학기금	7,696,219,581원
	연구기금	297,850,000원
현물	주식 및 물품	1,364,038,296원
합계		12,429,301,542원







2025.3.1.~2026.2.28.

경희와 함께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경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 2025학년도 기금 사용 현황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경희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인프라기금 △교육기금 △장학기금 △연구활동 지원 기금 순으로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교육기금과 교육인프라기금을 투입해 미래 교육·학습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과대학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기금	장학기금	교육인프라기금	연구활동 지원 기금
<p>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활동 지원 등</p> 	<p>등록금 지원 학업지원비·생활비 지원</p> 	<p>건축, 리모델링, 환경 개선</p> 	<p>실험기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p> 
<b>120</b> 억 원	<b>18.9</b> 억 원	<b>131.8</b> 억 원	<b>4.7</b> 억 원

#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많은 기부자님께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 조성에 힘써 주셨습니다. 든든한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은 교육·학습·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며 선후배 간의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경희는 기부자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대학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 약학’을 이끄는 11그루의 나무를 심다

차후영 동문(정치외교학과 67학번, (주)성진엑심 대표),  
모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40억 원 기부 약정



약학대학이 차후영 동문(정치외교학과 67학번, (주)성진엑심 대표)과 부인 윤영섭 여사(주)성진글로벌 대표)의 기부금 10억 원으로 ‘차후영·윤영섭 장학’을 기획하고 첫 번째 장학생 11명을 선발했습니다. 약학대학 학과·학년별 1명에게 졸업 때까지 학기마다 3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차후영 동문은 지난 2020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20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경희 의과학 발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 윤영섭 여사와 함께 2025년 4월 9일, 벚꽃이 만발한 모교를 찾았습니다. 약학대학 장학금 10억 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발전기금 30억 원 등 총 4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약정식과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김진상 총장과 김종복 대외부총장, 임동순 약학대학장, 김도균 대외협력처장, 오주형 경희대학교병원장,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김기택 전 의무부총장 등이 기부자 부부를 반겼습니다.

“장학금은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생들이 학문에 정진해  
기부의 뜻에 부합하는 성장을 이루길 바랍니다.”

### “사회적 책무 다하기 위해 기부 결심”

2020년 차후영 동문의 기부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에 ‘차후영홀’이 건립됐습니다. 병원의 기념행사와 심포지엄, 특강 등 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입니다.

차 동문은 당시를 떠올리며 “2020년 약정한 금액을 모두 기부한 후 사업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성진엑시미 창립 45주년을 맞은 2024년에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사회적 책무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차후영홀을 보며 감사함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병원 기부를 이어가는 동시에 제약 분야의 발전을 응원하고자 약학대학 장학금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기부를 통해 스스로 보람을 느낍니다.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그 보람과 기쁨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약학대학 ‘차후영·윤영섭 장학 사업’ 시행

이후 약학대학은 ‘차후영·윤영섭 장학’을 기획하고 첫 번째 장학생 1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장학은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약학대학 학과·학년별 1명에게 졸업 때까지 학기마다 3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약학대학은 2025년 11월 초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일반 성적 장학과 달리 학생의 학업적 잠재력과 목표 의식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습니다. 임동훈 학장은 “이번 기부와 장학 사업이 약학대학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약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선례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학생들이 장학금의 의미를 잊지 않고, 미래 약학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정택 의무부총장은 차후영 동문의 기부를 ‘100년 후의 그늘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11명의 장학생 선발이 11그루의 귀한 나무를 심은 행위고, 이 나무들이 향후 우리나라와 세계 약학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인재의 숲을 이룰 것이란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약학대학이 장학 지원을 통해 세계적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라며 장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하길”

차후영 동문은 장학금을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장학생들이 경희 약학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학문에 정진해 기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장을 이루길 바랍니다”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장학생들이 지금의 도움을 잊지 않고, 고마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희망했습니다.

장학생인 배미연 학생(약학과 02학번)은 “사업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장학금은 모든 장학생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며 역량을 키워 ‘미래 약학’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약학대학은 매년 학과별 신입생 가운데 14명(약학과 6명, 한약학과 4명, 약과학과 4명)을 차후영·윤영섭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장학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부 체육대학의 전통이 되다

체육대학 전이기 고험명예교수 강의실 네이밍 현판식  
“선배의 선행, 후배 교수가 이어받을 것”

체육대학에 아름다운 실천의 문화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체육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구성원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연이은 실천으로 체육대학관 2층에는 기부자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여럿 생겨났습니다. 2025년 3월에는 체육대학 전이기 고험명예교수의 이름을 딴 강의실 네이밍 현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체육대학 203호는 ‘전이기 강의실’로 재탄생했습니다. 김종복 대외부총장, 김도균 대외협력처장, 오경록 체육대학장을 비롯한 체육대학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이를 축하했습니다.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기부는 애정이 없다면 행할 수 없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구성원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대학이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강의실 현판식을 앞두고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추가 약정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기부했을 뿐인데 따뜻한 환대를 받아 더욱 기쁩니다. 체육대학의 롤모델이 돼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화가 체육대학의 모든 강의실로 퍼져나갔으면 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도균 대외협력처장과 체육대학 임신자·류재균 교수는 “전이기 교수님은 늘 체육계의 모범이 된 분”이라며 “선배의 선행을 후배가 이어받아 나눔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꾸준한 나눔이 만든 배움의 선순환 본초학 장학금

강지천 동문(한의학과 81학번)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로 후배들의 학문적 성장 지원

한의과대학은 매 학기 본초학 강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에게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 장학금은 강지천 동문의 꾸준한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안세민 학생(23학번)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이 특별한 이유는 강지천 동문이 꾸준히 실천해 온 선한 영향력에 있습니다. 강 동문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본초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를 시작한 이후, 매 학기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에는 ‘학문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후배들에게 학문적 열정과 나눔의 가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강 동문의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가 만들어 내는 변화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세민 학생은 기회를 마련해 준 선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업에 매진해 훌륭한 한의사가 되어 받은 나눔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경희를 위한 나눔, 미래를 위한 발걸음”

의과대학 이상열 교수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지난 30년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과대학 이상열 교수가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하며 아레테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존중과 예우의 의미를 담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5년 4월 4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열린 아레테클럽 약정식에는 김진상 총장, 김종복 대외부총장, 허영범 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해 이 교수의 나눔에 감사와 존경을 전했습니다.

이상열 교수와 경희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부 시절부터 경희에서 학문적 여정을 시작한 그는 현재 교수이자 경희디지털헬스센터 센터장으로서 대학과 병원의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올해는 경희에 입학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군의관 시절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경희는 제 영혼이자 육신과도 같습니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이번 기부는 지난 30년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열 교수는 기부의 배경을 전하면서 의과대학 교수의 ‘3대 책무’에 더해 ‘봉사’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연구·교육·진료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번 기부가 의과대학 디지털헬스 분야의 발전,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한 후, “남은 재직 기간 동안 후학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과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어려운 학생 장학금’ 8글자 남기고 돌아간 익명의 기부자

경희와 인연 없던 동대문 거주 90대 어르신  
현금 5천만 원 기부

2025년 5월 말, 90대 어르신 한 분이 서울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대외협력처 라운지 의자에 앉은 어르신은 배낭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지에 싸인 5만 원권 1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희와 아무 인연이 없던 어르신의 행동에 대외협력처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돈을 집에 뒤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라며 후련한 표정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 약정서 상단의 기부 목적란에 ‘어려운 학생 장학금’이라는 여덟 글자를 꼭꼭 눌러서 쓴 그는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며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끝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길 원했습니다. 대외협력처의 예우품, 공식 행사, 사진 촬영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어르신은 “동대문구에 살면서 기부할 곳을 고민하다가 기부금이 공정하게 쓰일 것이라 믿고 경희대를 찾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모은 돈을 내주면서도 어르신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모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기부에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교육 기회 확장이라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외협력처는 기부자의 뜻을 반영해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 빛나는 너의 밥길을 응원해! 학식 지원 '식시일반(食匙一飯)'

기말고사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조식과 중식 지원  
재직 동문 구성원 참여로 의미 높여

2025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서 '식시일반(食匙一飯)' 기말고사 학식 지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조식과 중식을 대상으로 학식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조식은 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연계해 학생 부담금 1천 원을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900여 명의 학생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외협력처의 대표적인 소액 모금 캠페인 '토닥토닥 든든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물가 시대에 후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매년 졸업생들의 참여 속에 재학생 대상 학식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상 총장, 김도균 대외협력처장, 김양진 교수의회 의장, 재직 교수동문회와 직원동문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습니다. 점심은 5,500원 중 4,500원을 기금으로 지원해 재학생이 1천 원에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학생식당 격려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총장은 식사를 마친 학생들에게 다과를 건네며 따뜻한 응원을 전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선배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와 같이 선배들의 실천에 감사를 전하는 재학생들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 "더 높이 비상할 100년" 약학대학 설립 70주년 기념식

약학대학 총동문회 등 70주년 기념으로  
발전기금 약 14억 2천만 원 약정

설립 70주년을 맞은 약학대학이 2025년 6월 중순 평화의 전당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축사를 통해 "약학대학이 걸어온 지난 70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100주년을 향한 담대한 비전을 나누는 자리"라며 "유능한 전문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 '지성의 약'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임동순 학장은 기념사에서 약학대학이 인류 건강 증진과 약학 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를 되짚으며 "약학대학은 교수·학생·동문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연구와 교육을 통해 약학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김동근 약학대학 동문회장은 "동문의 관심과 지원은 모교 발전의 기반"이라며 동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기회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으는 전통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전통"이라며 "여러분의 실천이 더 나은 학업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 모교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학대학 동문들이 3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으며, 70주년 행사 기간 동안 14억 2천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 “기회와 배움을 준 모교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문경·김지연 동문(약학과 82학번)  
약학대학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문경·김지연 동문(파미레(주) 공동대표이사)이 약학대학 70주년을 기념해 1억 원을 기부하며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발전기금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경희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동문은 졸업 30주년을 맞은 2016년에도 약학대학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약학대학은 B109호 강의실을 ‘김지연·문경 강의실’로 지정해 두 동문의 모교 사랑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학창 시절 받은 배움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간 선순환적 기부 문화의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김지연 동문은 대학 입학 당시 수석으로 입학해 대학원 과정까지 6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고마움을 잊지 않은 두 동문은 졸업 30주년과 약학대학 70주년을 맞아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문경·김지연 동문은 “학교로부터 받은 전문성과 기회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의 기업도 그 기반 위에서 있습니다. 기회와 배움을 준 모교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약학대학 70주년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기부로 조성된 기금은 융복합 약학 교육 프로그램과 미래 지향적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경희가 세계적인 인재 양성의 전당으로 비약하길”

홍충선 고향명예교수·  
故 이종민 동문 네이밍 현판식 개최

2025년 9월 9일,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관 라운지와 211-2호 강의실이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자정보대학관의 쉼터이자 교류 공간인 라운지에는故 이종민 동문(컴퓨터공학과 02학번)의 이름이, 많은 학생이 수업을 들으며 지식을 쌓는 211-2호 강의실에는 컴퓨터공학부 홍충선 고향명예교수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각각 부착됐습니다.

故 이종민 동문은 대학 시절 전공연수와 교환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재로 성장했고, 졸업 후 국내 대기업에 입사해 역량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고인을 기리고자 그의 추억이 담긴 모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과학관 건축기금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홍충선 교수는 2025년 8월 말 정년 직전까지 학무부총장(국제)을 역임하며 경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재임 기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홍 교수는 “1999년 부임 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환경을 마련해준 경희 덕분에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퇴임했지만 경희에 빛ն 마음으로 연구를 통해 기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세대를 넘어 한의학 미래 위해 뭉친 한외과대학 동문

임상 현장 한의사 8인의  
2억 원 기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한외과대학 동문 8명이 한의학 발전과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2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김도연 비경한의원 원장, 서재화 엄지한의원 원장, 김경태 경희소나무한의원 원장, 방민우 다이트한의원 원장, 강소정 인애한의원 노원점 원장, 김탁규 탁한의원 원장, 문지환 리봄한방병원 강남점 원장, 박형준 울제한의원 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기부자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한외과대학에서 수학했지만, 한의학의 미래를 향한 신념만큼은 같았습니다. “K-컬처(K-Culture)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듯, 한의학도 국제 무대에서 그 위상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경희가 서야 합니다”라는 공통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발전기금 약정식은 2025년 10월 15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대학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한의학의 학문 성과 실용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외과대학은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과 연구로 이어지고, 다시 실천적 한의학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부자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한의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함께 만드는 공학의 미래’ 공과대학 동문 초청 행사

공학관 분관 건립, 공과대학 발전 비전 공유  
성공적인 사업 추진 위한 기부 물결 이어져

공과대학 동문 초청 행사 ‘함께 만드는 공학의 미래’가 2025년 10월 22일 개최됐습니다. 공과대학의 미래 발전상과 공학관 분관(ANNEX) 비전 및 설계 방향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과대학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특히 2026년 착공 예정인 공학관 분관은 공과대학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교원과 학생,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과대학은 ‘2030+’ 발전 전략을 토대로 세계 100대 공과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관 건립을 비롯해 다양한 전략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최진환 공과대학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도약을 모색해야 합니다”라며 변혁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공학관 분관 건립 특별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분관 건립을 향한 구성원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공과대학 교원과 학생, 김완길 동문회장, 산업계에서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공과대학의 비전 실현과 분관 건립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학과별 동문회 역시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분관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 “과학기술 발전으로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길”

서정섭 동문(법학과 58학번) 발전기금 2억 원 기부  
누적 기부금 5억 9백만 원에 달해

서정섭 동문(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이 모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서정섭 회장 발전기금 전달식 및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과학기술 육성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그의 누적 기부액은 5억 9백만 원에 달합니다.

대학 재학 당시 그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갔고, 남들보다 3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모교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 동문은 “창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도 경희에서 배운 지혜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라며 “모교가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 확보가 필수입니다. 경희가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문으로 도약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동문의 기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섭니다. 평생의 신념을 모교에 투영한 미래 투자입니다. 그가 2021년 기부한 2억 원은 경희의 양자 연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금 2억 원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중 최상위 핵심 인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진상 총장은 “이번 기부는 경희의 양자 관련 기술 연구와 연구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부자의 뜻이 경희를 통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 ‘50년의 영광, 100년의 비전’ 호텔관광대학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모든 구성원 대학 발전 염원 담아  
발전기금 5억 3천만 원 조성

호텔관광대학 설립 50주년 기념행사가 2025년 11월 24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하모니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호텔관광대학은 1975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세계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어왔습니다. 2025년 발표된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세계 42위, 상해 학문 분야 평가에서 세계 17위를 기록하며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희국제관광포럼과 기념식으로 진행됐으며, 김진상 총장, 지은림 학무부총장(서울), 서원석 호텔관광대학장과 450여 명의 호텔관광대학 동문이 참석했습니다. 서원석 학장은 기념식에서 호텔관광대학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속 가능 기반 교육·연구 발전 △융복합 학문 체계 확립 △동문 소통 강화를 3대 전략 기조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서 학장은 “호스피탈리티 & 투어리즘(Hospitality & Tourism) 분야 세계 1등 대학을 목표로 미래 50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관광대학은 설립 5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조성에도 나섰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대학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 모금에 참여해 5억 3천만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호텔관광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모교 사랑, 후배 응원으로 꽃 피우다

김현태 동문(호텔경영학과 78학번)  
호텔관광대학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김현태 동문(주)베니키아재팬 대표이사)의 발전기금 기부식과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이 2025년 11월 26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김 동문은 호텔관광대학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호텔관광대학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진상 총장, 김종복 대외부총장, 김도균 대외협력처장, 서원석 호텔관광대학장,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김 동문과 다카키 나미 여사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김 동문은 졸업 후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에 진출해 호텔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재일본 한국인총연합회 회장과 경희 총동문회 일본지부 회장을 맡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경희를 잇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모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 영광스러운 기억이고, 언젠가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마음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기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부식 이후에는 호텔관광대학 303호에서 현판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강의실은 ‘김현태 강의실’로 명명되었습니다. 김 동문은 경희의 발전을 응원하는 고액 기부자를 위한 최고 예우 프로그램인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도 위촉되었습니다.



## 경희 품에서 받은 행복, 나눔으로 실천

체육대학(원) 동문·교원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인생의 버팀목 되어준 경희에 감사”

2025년 연말, 체육대학(원)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문과 교원이 기부를 통해 선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실천의 주인공은 정정택 동문(체육학과 84학번)과 김도균·오경록·한진욱·여홍철·이준희·조성균·김태형·성기석 등 체육대학(원) 교원 8명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경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2월 1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이들의 고귀한 실천에 감사를 전하는 기부금 약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정택 동문은 “경희대 체육대학을 졸업한 덕분에 체육 행정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모교에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모교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전했습니다.

체육대학 교원 8명은 나눔을 통해 행복을 실천하는 교원 모임 ‘아레테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을 ‘아레테(Arete)’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나선 원동력 역시 ‘행복’이었습니다. 오경록 체육대학장은 “경희와의 인연 속에서 행복하게 교직 생활을 이어왔고,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기부금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레테클럽에 가입한 첫 외국인 전임교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염남·SU MIAO 교수  
아레테클럽 가입

테크노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이염남·SU MIAO 교수가 아레테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아레테클럽은 나눔을 통해 행복을 실천하는 교원 모임으로, 두 교수는 이 모임에 가입한 첫 외국인 전임교원입니다. 2026년 1월 6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두 교수의 아레테클럽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염남·SU MIAO 교수의 아레테클럽 가입은 2025년 말 열린 '기부자 감사의 밤'이 계기가 됐습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이광봉 행정실장이 행사에 참석하며 느꼈던 소회를 교원들과 나눴던 것이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교수는 행사 취지를 접한 뒤 테크노경영대학원 중문 MBA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아레테클럽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이염남 교수는 “경희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경희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 MIAO 교수는 “연구할 기회를 준 경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경희의 국제화에 일조하도록 힘쓰겠습니다”라며 의지를 전했습니다.



## 경희대에 재학 중인 두 손녀를 둔 조부모의 마음

최광선·이수자 기부자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위촉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두 손녀를 둔 조부모 최광선·이수자 기부자가 2026년 1월 8일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경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 모임입니다. 최광선·이수자 기부자는 공학관 분관 ANNEX 건립을 지원하는 발전기금을 약정했습니다. 2026년 착공 예정인 공학관 분관 ANNEX는 경희 공학계열의 새로운 심장으로서, 미래 공학 교육과 연구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촉식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광선 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 발전의 기반이며, 그 과정에서 경희의 기여가 크다고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자 위원은 “교육은 국가와 인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경희대는 발전을 거듭하는 대학으로 늘 깊은 경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경희는 연구와 교육의 세계적 탁월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경희만의 후마니타스 교양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두 분의 뜻을 이어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순간

2025년, 경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시간의 곁을 따라 정성스럽게 쌓였습니다.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귀한 뜻이 더해져, 경희는 교육과 연구,  
인재 양성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2025

3월



체육대학 전익기 교황명예교수  
강의실 네이밍 현판식



강지천 동문(한의학과 81학번)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

4월



의과대학 이상열 교수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회기동 거주 90대 어르신  
익명으로 현금 5천만 원 기부



(주)아츠 방송 및 송출 장비  
기부

5월



차후영 동문(정치외교학과 67학번)  
모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40억 원 기부 약정

# Kyung Hee Donation



2025



학식 지원  
'식시일반(食匙一飯)'

9월



홍충선 고향명예교수·  
故 이종민 동문 네이밍 현판식

7월



문경·김지연 동문(약학과 82학번)  
약학대학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주)파이빅스, 양궁부에  
현물 및 발전기금 기부

6월



약학대학 설립 70주년 기념  
발전기금 14억 2천만 원 약정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  
아레테클럽 가입



에스지에이(주)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



최진환 공과대학장  
아레테클럽 가입

한 해 동안 이어진  
소중한 동행의 순간들을 따라가며,  
경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순간



차후영·윤영섭 장학 수여식



회기동 할머니 장학 수여식



김현대 동문(호텔경영학과 78학번)  
호텔관광대학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호텔관광대학 설립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5억 3천만 원 조성



2025

10월



서정섭 동문(법학과 58학번)  
발전기금 2억 원 기부

11월



공과대학 동문 초청 행사  
분관 ANNEX 건립 기금 조성



임상 현장 한의사 8인  
2억 원 기부

# Towards Global Eminence



정정택 동문(체육학과 84학번)·  
체육대학(원) 교원 8명 기부



기부자 감사의 밤

12월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염남·  
SU MIAO 교수 아레테클럽 가입

2026

1월



(주)펄트사이언스, 8억 원 상당의  
양자계면 조정 장비 현물 기부



최광선·이수자 기부자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  
위촉



이 타임라인은 경희의 성장과 변화가  
기부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의미 있는 여정의 기록을 나눕니다.

## 당신의 나눔에 답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은  
누군가의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학생들이 진심을 담아 쓴 편지를 전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장학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만 18세의 나이에 생계와 주거는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장학금을 기부하며 '반영장학'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캠퍼스 인근 동안교회의 기부로 마련된 '동안비전장학'을 통해서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장학 프로그램은 양 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으로서 대학생활을 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늘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덕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낯선 서울에서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 여러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 때 반영장학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결 마음을 놓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영장학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든든한 응원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직접 뵈는 적은 없지만,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학문에 정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값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 또한 반영장학으로 받은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며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마음을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책임감 있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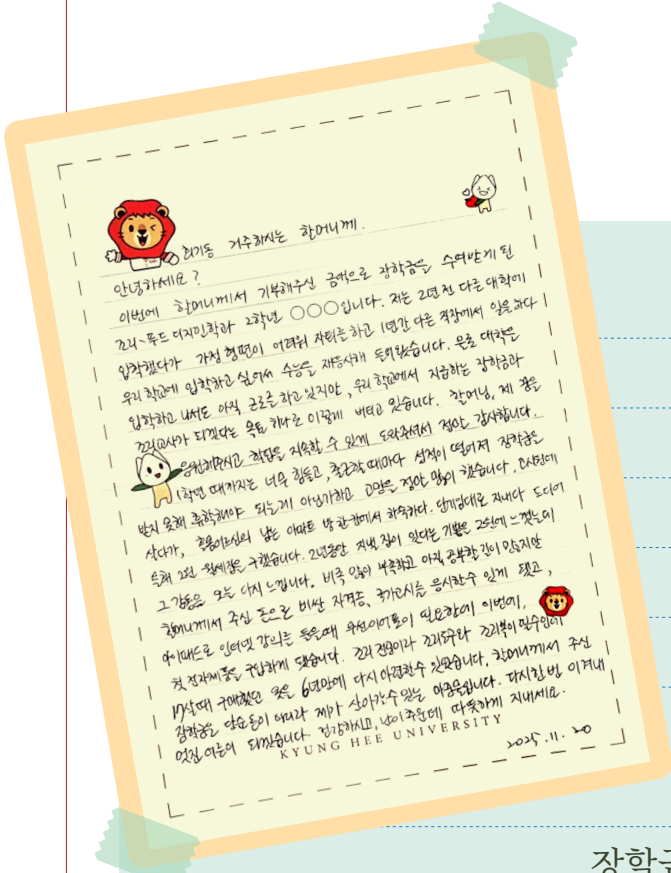
홀로 생계와 학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반영장학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학기도 기부자님 덕분에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서 있는 지금, 기부자님의 대가 없는 나눔과 사랑은 향후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부자님처럼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자립준비청년이지만 그동안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되었고, 낯이 늘어가는 빛에 사회로 나갈 때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제 상황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저를 씬터청소년으로 떠 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동안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장학금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사려 깊게 느껴졌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만큼 하루하루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공익변호사라는 꿈을 꼭 이루어 저와 같은 후배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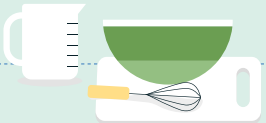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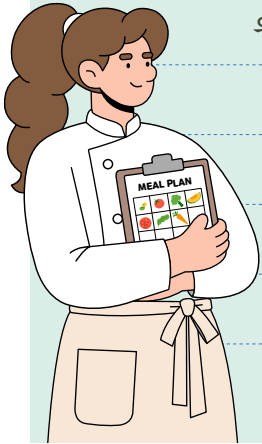
## 회기동 할머니 장학

2025년 5월, 회기동에 거주하는 한 90대 어르신이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쓴 5만 원권 1천 장을 배낭에 담아 경희대를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배낭 속 현금을 모두 꺼내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예우품과 공식 행사, 사진 촬영 등을 모두 사양한 기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을 전했습니다. 경희는 이러한 뜻을 기려 11월 20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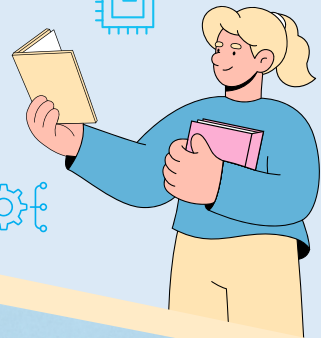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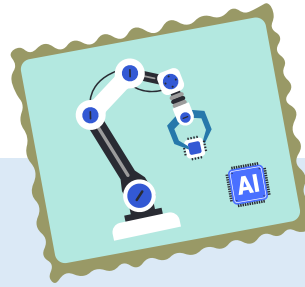
가정 형편상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지만,  
장학금과 조리교사라는 목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과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컸고,

장학금을 받지 못해 휴학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해 홀몸 어르신의 아  
파트 빈방에서 하숙을 했고, 단기임대를 전전하다가 드디어  
월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지낼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는데, 그 기쁨과 감동을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 할머니께서 주신 장학금은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 박상동 장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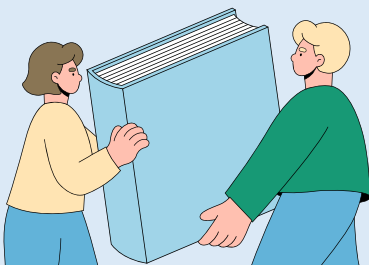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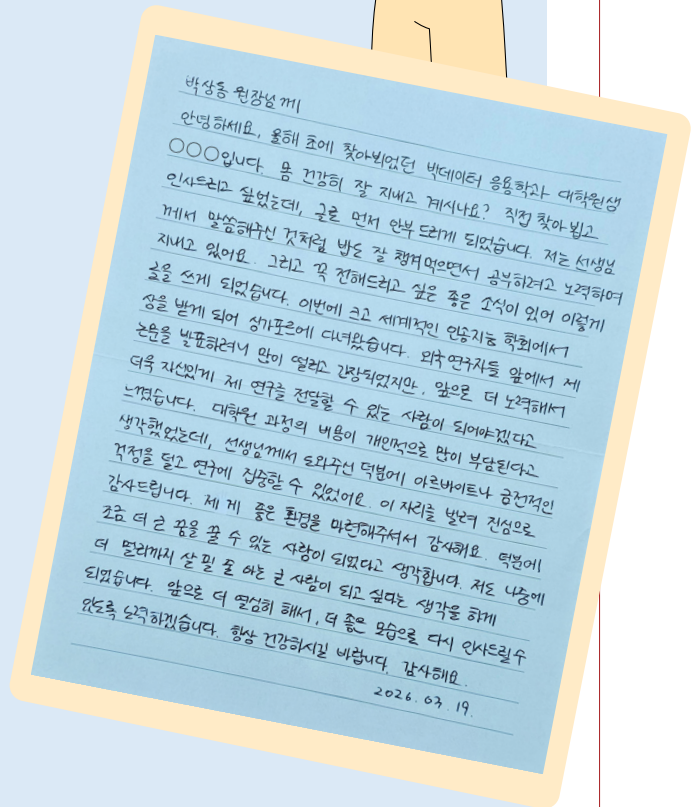
박상동 동문(한의학과 62학번, 동서한방병원 원장)은 후배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교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박 동문이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은 2억 5,850만 원에 이릅니다. 장학생은 대학 발전과 대외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동문 또는 기부자와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대학원 과정의 비용이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아르바이트나 금전적인 걱정을 덜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조금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유명우 장학

유명우 동문(경제학과 84학번, 유명골프클럽 회장)은 2017년 골프산업학과 장학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학은 이러한 뜻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6호 강의실을 '유명우 강의실'로 명명하고, 현판을 부착해 유 동문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2학기 유명우 장학생으로 선정해 주셔서  
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골프선수로 활동해 왔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꿈을 키워왔습니다.  
최고의 골프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KLPGA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상 부모님께서 더 이상 제 진로를 지원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선수생활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유명우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학업과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골프 연습과 체력 훈련 등 필요한 준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준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귀한 지원을 받은 만큼 학생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마음이 한층 무거우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회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함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 학업과 선수생활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품성과 책임감을 갖추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훗날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 선배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경희는 한국전쟁 중에 교사도 교지도 없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대학에서 출발했지만,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꿈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함께했습니다.



## 미래의 희망 나누는 화합의 장 'Spring Harmony'

경희대학교 총동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경희동문축제 - 경희 100년을 향한 Spring Harmony'가 2025년 4월 12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학과 총동문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희의 실천 정신을 공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경희가족과 지역주민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1부 환영식, 2부 총동문회 신춘교례회, 3부 월드 뮤직 콘서트(World Music Concert)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주관으로 열린 환영식에서 김진상 총장은 "총동문회는 모교와 동문을 이어주는 가교인 동시에 경희의 정신과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라며 총동문회 7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가치와 함께 글로벌 에미넌스(Global Eminence)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를 계승·확장해 다가올 '경희 100년'(2049년)에는 세계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선도적 연구 그룹을 육성하고, 노벨상 수상자 등 국내외 석학을 영입해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학생들을 세계적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후,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

여, 애정 어린 동행이야말로 경희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큰 힘"이라며 대학과 동문이 함께 힘을 모아 경희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경희 100년을 향한 가슴 뛰는 여정'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경희 100년을 향한 가슴 뛰는 여정' 발표를 통해 그간의 성취와 미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희는 설립과 함께 인간의 인간적인 미래, '문화세계'를 꿈꿨습니다. 설립자는 한국전쟁이라는 혼돈 속에서도 담대한 비전을 선포하며 경희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도 더 나은 인류의 꿈과 희망을 찾아 나서는 것이 경희의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파른 성장세로 도약한 성취를 바탕으로 경희는 경희가족과 함께 건설적인 협동·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며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 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춘교례회와 월드 뮤직 콘서트는 총동문회가 주관했습니다. 전영덕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는 어려운 순간에도 경희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희 정신을 바탕으로 모교가 가고자 하는 미래를 향한 길에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사는 모교와 함께 100주년을 준비하며 발걸음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월드 뮤직 콘서트에서는 권용진 동문(작곡가와 64학번)이 총감독을 맡아 세계 각국의 오페라, 뮤지컬, 가곡, 민요를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ESG 캠페인 실천 부스, 탄소중립 선포식, 중앙박물관·자연사박물관·미술관 개방 등 부대행사가 마련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 ‘경희 100년’을 향한 같이 가는 가치, 기부자 감사의 밤

2025년 12월 3일 저녁, 시그니엘 서울 76층에서 ‘기부자 감사의 밤’이 개최됐습니다. ‘경희 100년을 향한 같이 가는 가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경희를 응원하는 기부자와 장학생이 만났습니다.

대외협력처는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헌신한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따뜻한 후원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김진상 총장과 지은림 학무부총장(서울), 이은열 학무부총장(국제), 김종복 대외부총장, 기부자, 장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경희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는 기부

행사는 ‘감사’와 ‘도약’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1부 시작과 동시에 행사장의 불이 꺼지고 입구에 15개의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아코디언 형태의 조명에는 대학 본관과 평화의 전당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등불은 행사장을 한 바퀴 돈 후 각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실천으로 경희의 미래를 밝힌다’는 기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오프닝 영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경희의 현재를 보여줬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기부자의 헌신적 사랑이 경희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경희는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부는 학생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자원인 데고, 연구 환경을 개선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됐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경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바탕으로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꿈을 향한 굳은 약속, 장학생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

이날 가장 큰 울림을 준 순간은 장학생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기부자의 응원을 받은 장학생의 진솔한 이야기가 기부자에 닿았습니다. 정경대학 박강빈 학생은 “자립 준비생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장학금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네 꿈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따뜻한 응원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체육대학 유서연 학생은 KLPGA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지만 가정 형편상 선수 생활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때 ‘유명우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학업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과 동기를 준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라며 “받은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책임 있는 경희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한 ‘회기동 어르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도균 대외협력처장은 참석자들과 이 기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회기동에 거주하는 한 90대 어르신은 5월 말 경희대를 찾아 현금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희와 별다른 인연이 없었기에 뜻밖이고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대외협력처는 기부자의 뜻을 기려 ‘회기동 할머니 장학생’을 선발했고, 11월에 장학생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연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전해져 감동을 줬습니다.

## ‘경희 100년’의 청사진과 기부자의 동행

행사에서는 기부자와 장학생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문주현 동문(회계학과 83학번, ㈜MDM 회장)은 고액 기부자 모임인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늦은



‘2025 기부자 감사의 밤’을 통해 경희를 응원하는 기부자와 장학생이 만났습니다. 대외협력처는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헌신한 기부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따뜻한 후원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여기며 성장한 과정이 생깁니다”라며 “후배들이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발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기부자의 지원과 경희 구성원의 노력으로 그려진 ‘경희 100년’의 청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강인옥 중앙도서관장은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의 변화상을 알리고, 도서관이 자료 열람 공간에서 융합 공간으로 변모함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역사 속의 미래’를, 국제캠퍼스는 ‘기술로 만드는 문화세계’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과대학은 세계 최정상 공과대학으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진환 공과대학장은 ‘공과대학 2030+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공과대학 분관 ANNEX 신축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공과대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첨단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부금은 교육과 연구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휴머니티스칼리지 ‘사회혁신학기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적 지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Stipend 동행 캠페인’을 통해서도 젊은 과학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HU Future Scholar’를 양성해 글로벌 과학 혁신을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박옥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자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2025 MBC 대학가요제 - 청춘을 켜다’ 대상 수상팀인 예술·디자인대학 밴드 카덴체(강민서·강민구·성지원·이찬영·류영근 학생)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이번 ‘기부자 감사의 밤’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기부자의 뜻을 이어받아 전한 문명을 선도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행사에서는 경희의 발전과 비전에 공명한 기부자들의 추가 기부가 이어져 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후원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을 만나면서 기부가 대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경희 ESG 실천주간

경희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구적 문제 해결을 주요 가치로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리기 위한 '경희 ESG 실천주간'을 운영했습니다. 4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4월 10일에는 국제캠퍼스 인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 경희-플로깅(Plogging,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희대 구성원, 기흥구청 관계자,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2일에는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경희 100년을 향한 Spring Harmony' 행사의 일환으로 ESG 실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경희대와 총동문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평화의 전당 앞 광장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 지역사회와 ESG 정신 확산 위한 탄소절감 선포식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 ESG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경희 탄소절감 선포식'도 진행됐습니다. 경희대 구성원과 기흥구청, 동대문구청 관계자가 모여 'GREEN TOGETHER NOW, 우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메시지를 힘껏 외쳤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올 때까지 ESG 경영을 책임감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경희 ESG 실천주간' 동안 경희 구성원의 ESG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 안내와 분리수거함을 캠퍼스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종이 없는 연구비 관리시스템(Paperless)'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회의용 태블릿 지원 등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제주 해변을 살리기 위한 동행 '런케이션 프로젝트'



경희와 제주도, 제주대가 의기투합해 2025년 5월 23일 '런케이션(Learn+Vacation) 프로젝트: 함께하는 제주 해변 클린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종복 대외부총장, 사회혁신스쿨을 지도하는 우대식 교수와 참여 학생, 경희대 제주총동문회,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대 신애경 부총장 등 50여 명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해안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종복 부총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모여 일군 결과”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ESG 실천 사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희와 제주도가 2024년 체결한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귀포시에서 '사회혁신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스쿨은 재학생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학습(PBL) 방식의 교육혁신 모델입니다. 학생들은 서귀포시 특산품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유입을 위한 창의적 공간 디자인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 최근 10년간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가나다순, 2016년 3월~2026년 2월)

<b>권지혜</b> 화학과 동문	<b>김경숙</b> 체육대학 특임교수	<b>김근식</b> (주)동방메디컬 대표	<b>김선국</b>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故 <b>김연수</b> 김한의원 원장	<b>김영주</b> 한국어학과 교수	<b>김옥기</b> Fermionics Opto-Technology 대표	<b>김완길</b> (주)미래씨앤티 대표
故 <b>김용철</b> 前 경희학원 이사장	<b>김운호</b> 공공대학원 명예교수	<b>김원</b> 의학과 교수	<b>김인선·이미경</b> 故 이규종 교수 가족
<b>김정만</b> 前 서울캠퍼스 부총장	<b>김종희·곽속영</b> 故 김지혜 동문 가족	故 <b>김중배</b> 리뉴유탄의원 원장	<b>김진영</b>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b>김학찬</b> 센트럴청원치과 원장	<b>김한상</b> 前 국제캠퍼스 부총장	<b>김현태</b> 베니키아 칼튼호텔 후쿠오카 대표	<b>김호철</b> (주)뉴메드 대표, 한외과대학 교수
<b>김훈식</b> 화학과 명예교수	<b>남순자</b> 경희가족	<b>문경·김지연</b> 파미래(주) 대표	<b>문병찬</b> RM Global Partners 변호사
<b>문주현</b> (주)엠디엠 회장	<b>박광훈</b> 전자정보대학 교수	<b>박국자</b> 故 김경지 교수 배우자	<b>박상동</b> 동서한방병원 원장
<b>박용구</b> 의학과 명예교수	<b>박주석</b> 경영학과 명예교수	<b>박현일</b> 前 법과대학 교수	<b>변정우</b> Hospitality경영학부 명예교수
<b>서정섭</b> 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	<b>서효석</b> 편강한의원 원장	<b>손재식</b> 前 평화복지대학원장	<b>신준식</b>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b>신혜숙</b> 간호학과 명예교수	<b>에스지에이(주)</b> 경희가족	故 <b>오세영</b> 前 식품영양학과 교수	<b>우정택</b> 의무부총장

<b>유재환</b> 前 동서의학과 교수	<b>윤도준</b> 동화약품 회장	<b>윤의숙</b> 전택승 교수 모친	<b>이건·김영희</b> 이건내과 원장
<b>이건수</b> (주)동아일렉콤 회장	<b>이경민</b> 경영학과 동문	<b>이계탁</b> 행정학과 명예교수	<b>이민애·김선주</b> 故 이민영 동문 가족
<b>이봉관</b> (주)서희건설 회장	<b>이상만</b> (주)석희개발 회장	<b>이송</b> 서울성심병원 원장	故 <b>이수옥</b> 경희가족
<b>이영림</b> 영림한방병원 원장	故 <b>이영수</b> 故 윤현숙 동문 가족	<b>이옥규·김양숙</b> 故 이종민 동문 가족	<b>이용익</b> (주)신흥 회장
<b>이정숙</b> 故 이수병 동문 배우자	<b>이준열</b>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교수	<b>이태원</b> 의학과 명예교수	<b>이희주</b> 의학과 명예교수
<b>임사비나</b> 한의학과 교수	<b>임영우</b> 누베베 한의원 대표원장	<b>장진</b>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고황석좌교수	<b>전병익</b> 청암녹화 대표
<b>정성민</b> (주)덴티움 회장	<b>정중섭</b> (주)다림바이오텍 회장	<b>정중태</b> 지테크개발(주) 대표	<b>정준수</b> 기악과 명예교수
<b>조병태</b> SONETTE Inc 회장	<b>차후영</b> (주)성진엑스 대표	<b>최광선·이수자</b> 경희가족	<b>최신원</b> SK네트웍스(주) 회장
<b>최재영</b> (주)거봉INC 회장	<b>탁홍열·김명자 유족</b> 경희가족	故 <b>하태수</b> 백두산약국 대표	<b>한승무</b> 생체의공학과 교수
<b>허명희·허상준</b> KD운송그룹 회장	<b>허우성</b> 철학과 명예교수	<b>현경선</b> 간호학과 명예교수	<b>홍충선</b> 前 국제캠퍼스 부총장

## 2025학년도 기부자

※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모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명단입니다.

기부자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희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1억 원 이상

(재)범명장학회  
(주)대원고속  
(주)아이앤티엑  
(주)이노가드  
(주)케이피앤티피  
(주)한국씨티은행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현태  
덴티움(정성민)  
롯데장학재단  
메가스터디교육(주)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서정섭  
우덕재단  
유한재단  
윤익숙  
주식회사 디지털대성  
주식회사 아츠(김보성)  
차후영  
최광선·이수자  
파미래 주식회사(문경·김지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장학재단

### 5천만 원 이상

(재)오뚜기함태호재단  
(주)미래씨엠티(김완길)  
고촌재단  
김연경  
농어촌희망재단  
두산연강재단  
문주장학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용남고속(주)  
이세재  
재단법인 오케이배정장학재단  
창성장학회  
최순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형애장학회  
회기동할머니

### 3천만 원 이상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재)현송교육문화재단  
경희자연한약국  
공군교육사령부  
김경숙  
김도경  
김영주  
도병구  
삼성꿈장학재단  
삼성복지재단  
세아해암학술장학  
오스템임플란트(주)  
이주언  
인산장학문화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재단법인 DB김준기문화재단  
재단법인 신희연송학술재단  
재단법인보건장학회  
주식회사 원앤원솔루션  
한케어  
허영범  
호텔관광대학 총동문회  
흥한재단

**1천만 원 이상**

(재)우강장학재단  
 (재)현대차정몽구재단  
 (주)국보디자인  
 (주)메타모션엑스  
 (주)에스비트래블  
 (주)엑스포럼  
 (주)제테마  
 (주)지에프씨생명과학  
 (주)티시  
 (주)파마피아  
 (주)파이빅스  
 (주)퍼슨  
 (주)플렉스스포츠  
 Airbnb Ireland UC  
 KPX문화재단  
 강소정  
 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경희한의원  
 고성규  
 故 이수병  
 관광대학원 원우회  
 교촌에프앤비(주)  
 구원장학재단  
 군자플란트치과의원  
 권오병  
 그린가드(주)  
 기흥관광개발(주)  
 김동근  
 김만호  
 김지찬  
 김진균  
 김진영  
 김한석  
 김현  
 김호철  
 노상석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학주보 동문회  
 대한전기협회  
 리봄한방병원  
 매원장학재단  
 민유기  
 박수진  
 박주석  
 박주택  
 반영장학 기부자  
 사회복지법인 한국방정환재단  
 삼송장학회  
 삼일문화재단  
 생명보험협회

서덕순  
 성림무역 주식회사  
 성육문화재단  
 소나무회  
 손문기  
 송미연  
 송파재단  
 수서교회  
 아산사회복지재단  
 안덕균  
 엘트웰민초장학재단  
 엄지한의원  
 엄치과의원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예수교장로회 동안교회  
 오정진치과의원  
 왕성종  
 우석문화재단  
 유명우  
 윤송조창석문화재단  
 윤영문화재단  
 이경엽  
 이원철  
 이점마  
 이해숙  
 인경수  
 인송문화재단  
 재단법인 가승재단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재단법인 삼정장학재단  
 재단법인 상록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용운장학재단  
 재단법인 이회건 한일교류재단  
 전익기  
 정범진  
 정수장학재단  
 정정철  
 정형근  
 조석진  
 조영중  
 주식회사 에스에스케이  
 주식회사로꼬모티브  
 천만장학회  
 최수미  
 최영진  
 최은숙  
 최재영  
 최진우  
 최진환  
 평창주류합동  
 하미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함춘약국  
 해성문화재단  
 협성문화재단  
 흥남두  
 흥충선

**5백만 원 이상**

(사)대한민국배구협회  
 (재)송천재단  
 (주)다우기술  
 (주)빅리더  
 (주)씨에스냉장  
 (주)아이엠뱅크  
 (주)와이케이테크  
 (주)우진무역  
 가장큰태평양악국  
 강선무  
 강진선  
 강흥모  
 과천시애향장학회  
 광혜련  
 구준모  
 국민은행 신매단지점  
 권장혁  
 김경수  
 김남중  
 김민준  
 김탁규  
 내경한의원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다우전자(주)  
 류재홍  
 명인재  
 문관식  
 문숙장학재단  
 문창상  
 미래의동반자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박규창  
 박수현  
 박옥  
 박은정  
 박형준  
 박희준  
 반상우  
 백유상  
 사학과 민주동문회  
 산학협동재단  
 삼성선물주식회사

상아장학재단  
 서병관  
 서원준  
 선암장학재단  
 성기석  
 성주호  
 소윤수  
 손희상  
 송선근  
 신용범  
 신준식  
 심팩최진식장학재단  
 씨부티크호텔  
 안병주  
 여주태권도장  
 유가영  
 윤건웅  
 윤태영  
 이경진  
 이광민  
 이동훈  
 이상열  
 이순걸  
 이승현  
 이에은  
 이종길  
 이화형  
 재단법인 인춘  
 전영옥  
 전종득  
 정박헌  
 정복철  
 정산장학재단  
 정재현  
 주식회사 아미고스토리  
 지은림  
 채지은  
 치과 9기(김학찬)  
 하림장학재단  
 황문호  
 황유식  
 회계법인 숲

**3백만 원 이상**

(사)대한핸드볼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한석경 함흥장학회  
 (주)건영피혁  
 (주)기산바이오텍  
 (주)덕신이피씨  
 (주)에쓰푸드

**3백만 원 이상**

(주)와이벨  
 (주)제이유엑스  
 강인욱  
 강지천  
 강지훈  
 강천수  
 경방육영회  
 경원장학 재단법인  
 경희일생한의원  
 구철모  
 김도균  
 김동준  
 김상혁  
 김선광  
 김선주  
 김영미  
 김완길  
 김주훈  
 김지운  
 김진상  
 김해강  
 김해영  
 남동우  
 류준서  
 문규호  
 문병찬  
 박수종  
 박인철  
 박정훈  
 박지훈  
 박진빈  
 배현수  
 백종우  
 블루메디컬  
 생기한의원  
 서민철  
 성남시장학회  
 송한용  
 수림재단  
 시아물산(주)  
 식품생명공학과 동문회  
 신나리  
 신앤범치과의원  
 아바이왕순대  
 안옥모  
 알엑스 주식회사  
 양은정  
 영풍문화재단  
 오벨레브리운슨오바리도아  
 유중근  
 이민애

이상규  
 이상현  
 이상휘  
 이윤성  
 이종욱  
 이주석  
 이지아  
 인피니티컨설팅(주)  
 임준원  
 장규태  
 장애경  
 재단법인 봉은재단  
 정남호  
 정준서  
 조송제  
 조희재  
 주식회사 미소프레쉬  
 주신영  
 최기현  
 최민혁  
 최연식  
 최충락  
 최호숙  
 하영호장학재단  
 허의남  
 형남진장학재단  
 호텔관광대75학번해외동문  
 흥산장학재단  
 흥종기

**1백만 원 이상**

(사)동해연구회  
 (신규)유성관  
 (주)강스상사  
 (주)금양인터내셔널  
 (주)나비코  
 (주)라온데이터컨설팅  
 (주)레뱅  
 (주)리얼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주)릴리프  
 (주)서울앤호텔  
 (주)서초교통  
 (주)시리오  
 (주)신티에스  
 (주)씨티에너지  
 (주)에코프라임  
 (주)테크코리아  
 (주)휴라이트  
 GS건설(주)  
 가이드치과의원  
 감선주

강덕현  
 강동호  
 강민기  
 강세찬  
 강승필  
 강애자  
 강영미  
 경기도한약사회  
 경기영화학교연합  
 경희기독교수회  
 계룡건설산업(주)  
 고영실  
 박은수  
 광주회관(엄귀순 대표)  
 구영준  
 구주무역상사  
 권명주  
 권성현  
 극락돈  
 길진영  
 김광표  
 김근수  
 김금자  
 김대겸  
 김동률  
 김동연  
 김미라  
 김미주  
 김민경  
 김민규  
 김민성  
 김병철  
 김봉구  
 김봉진  
 김상우  
 김상훈  
 김선명  
 김설희  
 김성  
 김성수  
 김성훈  
 김수연  
 김수오  
 김승현  
 김연정  
 김연하  
 김영관  
 김영균  
 김영철  
 김영표  
 김용하  
 김우순

김유숙  
 김은영  
 김재덕  
 김정부  
 김정애  
 김정호  
 김정희  
 김종호  
 김주희  
 김준태  
 김준현  
 김지연  
 김지영  
 김진권  
 김진배  
 김진현  
 김철수  
 김태희  
 김필희  
 김하얀  
 김훈식  
 김희라  
 나비발레스튜디오  
 남무길  
 남상욱  
 노진아  
 다나카유키야  
 다인오세아노 호텔 앤 리조트  
 다인치과의원  
 닥터유부부치과  
 대한로드라인(주)  
 대한한약사회  
 도서출판 현문사  
 동대문구약사회  
 동부건설(주)  
 동인천치과의원  
 라인서  
 류문주  
 리앤아이산부인과  
 마구로준  
 마인즈그라운드(주)  
 명성악국  
 문나래  
 문도원  
 문석윤  
 문은희  
 민성욱  
 바른이만들기치과교정치과치과의원  
 박건우  
 박균성  
 박근형  
 박미라

박병대비뇨기과의원	송영복	유달라	이용석
박선준	송인호	유민스테인레스(주)	이운하
박선희	송주경	유병호	이원용
박성규	송치과	유순지	이윤정
박성현	송파태양약국	유신정	이윤희
박숙현	순환한의원	유영철	이은경
박승민	신기순	유재룡	이은석
박약다식	신성산학재단	유정목	이은열
박영석	신성희	유진약국	이은정
박유경	신세계한의원	유창석	이은주
박은용치과의원	신소희	유태환	이장희
박정규	신정우	윤경숙	이재순
박정미	신항순	윤경식	이재열
박종욱	신현미	윤경호	이정빈
박준영	신혜영	윤기선	이정재
박지연	안효빈	윤덕진	이정희
박지윤	안효진	윤봉구	이제승
박치과의원	애플치과	윤여준	이종수
박한솔	앙고운	윤은경	이종하
박혁	양동치	윤준	이주희
박호진	양명희	윤진원	이준희
배순주	양진혁	이경원	이지오
배재형	양창범	이계희	이지우(컴포즈전자정보대학)
법무법인 더웨이	엠케이치과의원	이규민	이지우(컴포즈커피)
법무법인 문승	여민경	이래경	이지혜
변현문	연합뉴스	이명주	이진경
변호사 정영민 법률사무소	연합기	이미경	이진주
부백	영주미플란트치과	이미자	이창욱
부부약국	영통원탑정형외과의원	이범석	이철희
브리앙	오르다치과의원	이상민	이총기
비경한의원	오세윤	이상헌	이총엽
비반트	오승희	이상훈	이헌우
산본척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	오예환	이선민	이현석
새한치과	오종민	이선이	이현숙
생물학과동문회	오진호	이성미	이현정
상그라	오태호	이성민	이형란
서경아	와인워터티마스터소믈리에과정	이성주	이호석
서동혁	42기	이소연	이화영
서세석	왕명자	이수열	이효설
서소정	외식경영학과 나눔 동아리	이승관	이효성
서울시한약사회	용산구약사회	이승녕	인천남동소방서
서윤호	우리은행	이승우	인천미추홀소방서
서충욱	우승철	이승재	인천부평소방서
서태석	우승희	이아경	임동순
서현웅	우정택	이안치과	임준엽
서혜선	원규연	이연서	장경은
석소현	원연호	이영남	장광집
손석균	원재구	이영옥	장석원
손정욱	위정국	이영월	장소영
손정혜	위정범	이영주	장순기
손지영	유광석	이영학	장윤석
송성배	유기웅	이용	장윤혁

**1백만 원 이상**

재단법인 선현  
 재단법인 송화재단  
 재단법인연당장학회  
 재직동문교수 일동  
 전숙  
 전효숙  
 정극모  
 정기택  
 정기홍  
 정도민  
 정민영  
 정민형  
 정선호  
 정소진  
 정연희  
 정영식  
 정영우  
 정원석  
 정윤석  
 정윤주  
 정은경  
 정의석  
 정인경  
 정임규  
 정재학  
 정정택  
 정종태  
 정지영  
 정지호  
 정태지  
 정환욱  
 정효선  
 정훈  
 제주온담샤브아라점  
 조영하  
 조옥현  
 조재광  
 조지영  
 종로소방서  
 주성재  
 주식회사 더 웰컴  
 주식회사 비티  
 주식회사 월드락커  
 주식회사엠지농업회사법인  
 지역문화기치연구소  
 지형두  
 진영호  
 진호성  
 차미호  
 차웅석  
 천명우

천주헌법률사무소  
 최대엽  
 최수정  
 최여진  
 최옥희  
 최윤희  
 최인용  
 최재우  
 최주환  
 최지원  
 추연학  
 춘천소방서  
 춤이음  
 카톨릭대학약국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 총동문회  
 하광수  
 하현이  
 한광령  
 한국난원  
 한권탁  
 한기협치과의원  
 한원장학회  
 한정원  
 한지한톡 주식회사  
 한창석  
 행복치과의원  
 허균영  
 허성준  
 허수지  
 현강약국  
 홍성진  
 홍승재  
 홍의준  
 홍일기  
 홍진모  
 흥현미  
 화인지과병원  
 황성민  
 황성원  
 황수현  
 황영희  
 황은영  
 황재성  
 황철수  
 효벤트  
 효성온누리약국

**1백만 원 미만**

(재)울촌재단  
 (재)종이문화재단  
 (주)디자인필드

(주)백두조경  
 (주)설아래  
 (주)우아앤코  
 (주)임상우닷컴  
 (주)코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주)하안풍차제과 곡반점  
 (주)훈프르  
 3월3일  
 8번가  
 BAI XUEKE  
 BUI MINH ANH  
 CHEN SONGZHE  
 CHEN XI  
 CHEN YINGSHAN  
 CHENG XIAN TONG  
 e튼튼치과의원  
 e하임치과  
 Haru&Aki Flowers  
 HEMANT KUMAR  
 HUYIJIA  
 JIANG DONGDONG  
 JIAO ZI  
 KEWALIN SIMUANG  
 LI CHAO  
 LI XIANGYAN  
 LI XIONGJIE  
 LIANG HANYUE  
 LIU YIRAN  
 M2수학  
 Melody  
 Misook Kim  
 NGUYEN TUONG VAN  
 REVADEKAR CHETAN  
 CHANDRAKANT  
 SU MIAO  
 Tetsuya Magara  
 TheKIM (더킴)  
 TU BINGLUN  
 VO CONG THANH  
 VONGOCTHANHPHUONG  
 WU CHENGAI  
 WU ZIYANG  
 W치과의원  
 XIU YAWEN  
 XU RUOXIN  
 YU HANBEI  
 YU WEN  
 ZHANG WENXIANG  
 감동익  
 강경태  
 강경호  
 강규민

강남규  
 강대천  
 강도원  
 강동성  
 강동희  
 강명지  
 강문자  
 강문혜  
 강민서  
 강민정  
 강민지  
 강병걸  
 강서준  
 강석현  
 강석희  
 강선미  
 강선희  
 강성구  
 강성엽  
 강성우  
 강성원  
 강성호  
 강세현  
 강시원  
 강신아  
 강예리  
 강우혁  
 강유정  
 강은주  
 강은진  
 강이나  
 강이삭  
 강전영  
 강정훈  
 강주관  
 강주형  
 강준함  
 강지숙  
 강지애  
 강지혜  
 강현정  
 강형규  
 강희석  
 강희정  
 경희대학교 노동조합(국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서울)  
 경희화원  
 고광덕  
 고도형  
 고두형  
 고석근  
 고수연

고아라  
 고양이를 따라와  
 고유진  
 고윤정  
 고은혁  
 고정환  
 고창남  
 고하나  
 고하남  
 고혁기  
 고희기  
 고희진  
 골목한식  
 공소혜  
 공용철  
 공지원  
 공천석  
 광병준  
 광상덕  
 광은선  
 광재성  
 광종훈  
 광지영  
 구 기룡  
 구가현  
 구교섭  
 구나운  
 구동윤  
 구민숙  
 구분석  
 구수정  
 구원숙  
 구철성  
 구태영  
 구태운  
 구태준  
 구현주  
 구호은  
 국민부동산  
 국제쿠밀리10기  
 굿모닝플러스치과  
 권규한  
 권기덕  
 권기봉  
 권대호  
 권미정  
 권민주  
 권서울  
 권성인  
 권세연  
 권수경  
 권영균

권영보	김대호	김선희	김예화	김종만	김태규	김희성
권예진	김덕기	김설화	김옥지	김종민	김태균	김희연
권오윤	김도연	김성남	김용겸	김종범	김태영외과의원	김희진
권오희	김동건	김성룡	김용권	김종복	김태중	김희찬
권용수	김동구	김성민	김용석	김종수	김태형	나가윤
권은정	김동영	김성영	김용주	김종우	김태훈	나경인
권재현	김동주	김성우	김용진	김종인	김하늘	나근희
권정무	김동환	김성일	김용호	김종일	김하랑	나기선
권태연	김동훈	김성태	김용화	김종필	김하영	나엘상사
권태우	김두리	김성현	김옥	김종훈	김학영	나연주
권혁	김린아	김성호	김옥재	김주용	김학원	나유경
권혁상	김만석	김성환	김운성	김주철	김학정	나익진
권혁준	김명건	김성희	김원필	김주형	김한다	나현미
권현숙	김명은	김세경	김유경	김준완	김향규	나형민
권현지	김모진	김세연	김유비	김준호	김현국	남궁선
금경화	김무균	김세진	김유선	김준희	김현빈	남궁영
길재호	김문주	김소명	김유진	김지민	김현서	남궁유찬
길주형	김미선	김소진	김유찬	김지석	김현수	남궁혁
길휘종	김미성	김소현	김윤범	김지수	김현정	남기섭
김가빈	김미정	김소희	김윤주	김지숙	김현주	남기원
김건우	김미혜	김소희	김윤지	김지원	김현준	남기태
김경락치과의원	김민	김송은	김윤희	김지유	김현지	남보현
김경목	김민서	김수아	김울립	김지윤	김현진	남상수
김경민	김민석	김수이	김은서	김지은	김현화	남상환
김경선	김민선	김수정	김은옥	김지인	김형성	남성욱
김경욱	김민정	김수종	김은정	김지한	김형완	남신혜
김경태	김민주	김수하	김은주	김지혜	김형은	남윤재
김경표	김민중	김슬기	김은준	김지환	김형채	남재영
김경희	김민지	김승옥	김은진	김지회	김혜란	남지연
김관수	김민채	김승주	김이슬	김지후	김혜린	남형식
김관혁	김민혜	김승준	김인경	김지훈	김혜민	남혜정
김광수	김백수	김승한	김인숙	김지흥	김혜정	남희우
김광우	김범석	김시중	김인한	김지희	김혜중	노민지
김권일	김병기	김아현	김일형	김진강	김혜진	노바이탈리아노
김규연	김병록	김앤박이비인후과	김장수	김진경	김혜현	노서진
김규원	김병직	김양석	김재경	김진교	김호	노성혁
김기국	김병찬	김양진	김재엽	김진대	김호연	노유정
김기표	김병학	김연섭	김재협	김진성	김호영	노윤서
김기현	김보람	김연종	김정	김진솔	김호은	노현정
김기형	김보민	김영근	김정미	김진수	김호인	능우청
김나용	김보성	김영덕	김정민	김진옥	김호제	닥터이치과
김나현	김봉철	김영동	김정산	김진해	김홍률	닥터참치과
김나혜	김봉현	김영란	김정연	김진형	김홍진	달콤한위로 경희대
김낙우	김상덕	김영순	김정옥	김찬주	김화용	국제캠퍼스점
김난희	김상욱	김영식	김정원	김창목	김화정	달콩
김남웅	김상현	김영애	김정윤	김천수	김화진	도서출판하우
김남일	김서연	김영진	김정은	김천형	김효수	도현우
김다민	김서우	김영훈	김정주	김철	김효진	도혜린
김다은	김서원	김영희	김제영	김철완	김효희	도혜원
김대기	김석용	김예진	김제원	김초이	김후남	두레박
김대영	김석주	김예찬	김제희	김태경	김휴	리윤상
김대옥	김선미	김예호	김종경	김태광	김흥대	레조낙코리아

**1백만 원 미만**

류근환	박명진	박은경	박환희	비티제이	송기휴
류성현	박미	박은수	박효준	빅문 (BIGMOON)	송다예
류일훈	박미성	박은아	박효진	삼성드림치과	송동훈
류재인	박민경	박은지	박흥민	삼창치과의원	송병섭
류정동	박민기	박의진	반서연	사갈의마을	송상혁
류하성	박민솔	박재우	방상현	서동균	송석홍
리틀스마일소아치과	박민식	박정민	방서연	서동철	송승원
마현희	박민주	박정수	방선경	서명옥	송영주
맘스터치	박민철	박정숙	방성옥	서병석	송영호
매직키스치과의원	박범준	박정아	방철호	서병철	송유례
맹상현	박병관	박정화	방헌지	서보학	송유선(뷰티올)
맹웅렬	박병찬	박종서	배금옥	서신재	송윤경
메모아르	박보연	박종필	배민경	서영균	송은모
메콩타이 영통점	박보영	박종현	배서영	서영재	송은미
명륜진사길비(웅인경희대	박봉규	박주영	배소영	서원석	송재만
캠퍼스점)	박상배	박주하	배예빈	서유경	송주빈
명주연	박상우	박주현	배인숙	서유현	송지환
명진건	박상원	박주혜	배재천	서은혜	송채린
모모치과의원	박상일	박주환	배주예	서일한	송치욱
문동현	박상현	박주흔	배준영	서정문	송현수
문병원	박상협	박준규	배진아	서종민	송형석
문보경	박서정	박준석	백기원	서주연	송형주
문상관	박성구	박준표	백림치과의원	서지혜	송혜경
문상연	박성욱	박지민	백서연	서태웅	송화경
문성국	박성진	박지현	백선호	서행웅	수목원소아치과
문소진	박성하	박지호	백성선	서현영	쉬만스카알리나
문수영	박성화	박지홍	백소우	서희애	신규리
문영균	박세진	박진만	백수근	선대규	신규호
문용재	박소라	박진봉	백승민	선도영	신기욱
문종필	박소연	박진서	백영걸치과의원	선민정	신기준
문준수	박소현	박진석	백운사무기	선정아	신명남
문지희	박솔	박진수	백인렬	선종호	신명철
문필동	박송태	박진호	백인화	성락훈	신보희
문향란	박수민	박진희	백지원	성연선	신봉규
문형민	박수인	박찬광	백채은	성열관	신상우
미소드림치과의원	박순기	박찬근	백현숙	성은경	신성기치과의원
미소뷰공인중개사사무소	박슬기	박찬호	백혜수	성은지	신수민
민경미	박승범	박천후	베니키아호텔제주	성지윤	신승민
민경은	박신애	박철수	베스트치과의원	성하연	신영호
민관동	박신영	박태진	베스필치과의원	소담샤브칼국수	신영훈
민세홍	박신의	박태희	변규진	손경현	신예선
민수홍	박아현	박택운	변상헌	손다혜	신용철
민여련	박연경	박하은	변송호	손동휘	신우섭
박경하	박연신	박한중	변호사 강석보 법률사무소	손민기	신우화
박경협	박연진	박해순	변희림	손수민	신원균
박경호	박영재	박해일	보건치과	손승연	신은미
박경희	박예진	박현우	복비뇨기과	손장원	신재권
박나현	박옥분	박현재	불의미소치과의원	손재순	신재윤
박도현	박용관	박현정	봉정연	손정은	신재호
박라연	박용섭	박형규	부기하	손종역	신정민
박명서	박우현	박혜선	부룩카페	손현승	신지선
	박윤규	박혜영	부영민	송기우	신혜원

신혜진	양승범	오형나	유창규	이경선	이상순
신호철	양승우	오형민	유현석	이경옥	이상용
신화원	양승환	오혜지	유현욱	이경현	이상원
신희정	양영림	오희경	유혜림	이경혜	이상위
심건보	양용훈	온정손칼국수	유효운	이경희	이상윤
심범상	양웅모	올림픽치과의원	육순형	이고은	이상임
심상국	양제인	왕수희	육현승	이관용	이상혁
심상백	양주나	외동치과의원	윤도섭	이광봉	이상화
심성원	양하람	우리들치과의원	윤동수	이광은	이상희
심소현	양현택	우리좋은치과	윤빛한의원	이광조	이생수
심영옥	양호	우승민	윤서진	이광희	이서울
심인섭	양희성	우예지	윤석준	이규현	이석근
심재훈	엄고은	우종일	윤성민	이근영	이선미
심지선	엄상민	우진영	윤성상	이금	이선영
심채영	엄재범	우해영	윤성우	이금화	이선우
심현정	엄재영	우희철	윤수연	이길연	이선희
심효진	엄혜옥	웃는아이치과	윤수진	이나라	이성구
씨앗디타이	에이블랑 발레	원시은	윤용식	이나래	이상연
아름다운 턱 치과	에잇올리	원유열	윤윤서	이다원	이상인
아리아	여홍철	원지환	윤일권치과의원	이다희	이성재
아지트라이브	연우피앤씨	원창연	윤정기	이도연	이성호
안광석	염채린	월진재단	윤정섭	이도영	이성훈
안광현	영통복요리	웰빙치과의원	윤정원	이도는	이성희
안귀호	예성준	유가현	윤종호	이동석	이세은
안리나	오경록	유경민	윤종환	이동연	이소임
안병석	오경진	유광민	윤지민	이동준	이소정
안상현	오관석	유권혁	윤지현	이루리	이소현
안성경희365한의원	오동환	유길호	윤채원	이만균	이소희
안성제	오명진	유니나치과	윤태일	이명귀	이수경
안성준	오병찬	유명환	윤태자	이명천	이수민
안세영	오선민	유병기	윤태호	이명현	이수복
안세현	오성민	유병준	유태	이묘정	이수빈
안수지	오수민	유상근	유헌	이문동커피집 크럼블로	이수아
안수진	오수현	유상희	유헌수	스터스	이수연
안승범	오승윤	유세란	유헌준	이미라	이수영
안신명	오승인	유수현	유헌현	이미숙	이숙경
안앤유치과의원	오승주	유씨블(Youthable)	유헌경	이미현	이순원
안양어린이 치과의원	오애환	유영춘	유헌중	이민기치과의원	이승리
안영규	오연수	유영훈	은성약국	이민서	이승민
안영민	오영석	유옥재	은순애	이민우	이승빈
안영훈	오은희	유용균치과의원	은평경희부부한의원	이민정	이승연
안정선	오익석	유용석	은평자연약국	이민지	이승준
안종현	오인환	유용철	의료법인 금강의료재단	이민철	이승호
안준성	오재빈	유용선	이가연	이민형	이승환
안지수	오정숙	유은정	이가영	이백수	이승훈
안지웅	오준택	유장준	이가용	이범순	이시백
안혜원	오지민	유재혁	이강민	이병숙	이시은
안효경	오지우	유재홍	이강준	이병철	이안치과병원
양가림	오진영	유정민	이강훈	이빈	이억이
양성익	오피스넥스 수원점	유정현	이건형	이사라	이연아
양세종	오혁진	유지원	이경국	이삼우	이영남
양순미	오현정	유차니	이경래	이상미	이영광

1백만 원 미만

이영구	이재찬	이천화	임지은	전동환	정연돈
이영근	이재형	이철민	임지혁	전민기	정연옥
이영식	이정규	이태희	임진택	전병문	정연재
이영은	이정미	이튼플러스스치과	임창오	전복실	정영재
이영훈	이정민	이현경	임채민	전서경	정영준
이예령	이정윤	이현규	임태준	전성규	정예린
이예슬	이정은	이현기	임한얼	전성호	정예빈
이예원	이정인	이현복	임현태	전소영	정예원
이예인	이정현	이현옥	임호연	전수연	정용석
이예진	이정호	이현주	임희진	전영수	정우상
이예형	이정훈	이현지	잇츠소유 경희대 본점	전예지	정원규
이용성	이제희	이현직	장건오	전용민	정원욱
이용임	이조원	이현진	장광현	전윤희	정원웅
이용정	이종범	이현호	장대식	전인수	정윤성
이용택	이종석	이혜란	장동주	전준환	정의용
이용휘	이종오	이혜린	장명수	전중환	정의현
이우경	이종원	이혜진	장문석	전지수	정이나
이우현	이주영	이호기	장미내	전지영	정인욱
이우희	이주현	이호선	장미희	전지현	정재우
이웅희	이준성	이호준	장민환	전진우	정종엽
이원구	이준영	이홍규	장보아	전천후	정종천
이원진	이준원	이효린	장석민	전택승	정주용
이유성	이준일	이효석	장선한	전현우	정주은
이유진	이준태	이효원	장설화	전현준	정주희
이윤구	이준혁	이후신	장수홍	전호심	정준모
이윤서	이지나	이훈	장순민	정관선	정준철
이윤숙	이지민	이희정	장용섭	정담희	정지혜
이윤희	이지연	이희포	장우창	정동규	정진훈
이은걸	이지우(컴프즈외대점)	익명	장유현	정동영	정창모
이은구	이지원	익명(9878, 8514)	장윤정	정라나	정창현
이은미	이지윤	익명(김혜령)	장윤진	정미선	정채원
이은배	이지은	익명(홍신영)	장인석	정미정	정치과의원
이은상	이지치과의원	인동부부치과의원	장재성	정민교	정태우
이은솔	이지현	인천중부소방서	장재우	정민섭	정한솔
이은옥	이지홍	임관혁	장재훈	정민숙	정헌중
이응규	이지훈	임교범	장준복	정민아	정혁상
이응석	이진규	임대영	장준혁	정민우	정현교
이의주	이진무	임동건	장준호	정별하	정현철
이의한	이진수	임병천	장지원	정상현	정현향
이의현	이진우	임부자	장지호	정선영	정현화
이자연	이진표	임사비나	장진혁	정선주	정혜원
이장훈	이진혁	임성옥	장찬윤	정선화	정혜정
이재건	이진희	임성준	장창영	정성곱창전골 발산점	정혜찬
이재기	이찬행	임성채	장터밥상	정성모	정호균
이재동	이창건	임소현	장하영	정성욱	정홍림
이재수	이창주	임여진	장현섭	정수영	정효재
이재연	이창훈	임울표	장현수	정수현	정희연
이재용	이채서	임인학	장형진	정수희	정희재
이재우	이채영	임정섭	장혜린	정스런	제유진
이재욱	이채원	임준하	장호재	정승환	제정호
이재원	이채진	임준혁	전귀선	정아라	조광약국
	이채현	임준형	전근영	정아름	조동규

조동환	주선형	최배경	최지윤	한상진	홍민기
조두행	주식회사 너스커넥트	최병직	최지은	한선규	홍범일
조미희	주식회사 디자인사무실	최병희	최지현	한성우	홍성연
조민경	주식회사 원더라운지	최봉용	최지희	한솔	홍승모
조민환	주연우	최빈	최진무	한솔약국	홍신영
조병렬	주영식	최상호	최진영	한송희	홍실
조선우	주의종	최서영	최창용	한승욱	홍아름
조성국	주진혜	최서윤	최태원	한영신	홍양숙
조성균	주현미	최서희	최필호	한원국	홍영식
조성민	주호식당	최석원	최하나	한유미	홍원기
조성인	지상현	최석환	최학수	한은정	홍인수
조성진	지성환	최선영	최해진	한자경	홍전일
조성훈	지승렬	최선우	최현승	한재광	홍정민
조소연	지승현	최선호	최현아	한재민	홍준기
조수민	지원	최성규	최현주	한재희	홍준석
조수하	지창언	최성운	최현홍	한정섭	홍진숙
조양래	지현서	최성호치과	최형규	한종민	홍학
조연주	진성우	최소림	최형민	한지민	홍해용
조영욱	진소정	최승아	최혜민	한지수	홍현표
조용기	진승범	최승재	최혜숙	한진욱	홍혜정
조운상	진예원	최양우	최호영	한창용	최이트캐(코리아
조웅희	진욱	최영태	최호준	한충현	푸드스토리)
조원현	진창호	최예나	최효정	한태협	황경은
조유나	진호	최예린	최희수	한현우	황남석
조윤정	차규호	최용준	주연주	한혜경	황동현
조은별	차민주	최우영	주현규	한희찬	황동환
조은애	차유주	최원주	탁효건	함대현	황범주
조익현	차윤주	최유진	태양스튜디오	함동준	황봉희
조인숙	착한낙지	최윤희	투파인드피터	함민지	황선진
조장희	참이맛감자탕	최은아	파리바게뜨 경희대점	함부철	황선희
조재현	채윤병	최은정	평창소방서_의용소방대	함초름	황성미
조재희	채주원	최재구	포이언치과의원	함현숙	황성철
조정래	채진기	최재민	풍혜신	함현지	황수용
조정민	천경원	최재연	퓨처밀	함형준	황용국
조정재	천승재	최재혁	프라임S치과의원	해림복사실	황윤섭
조정훈	천일영	최정미	하나연	허두용	황은숙
조종만	천지우	최정우	하나큐치과	허브약국	황은옥
조준성	천지유	최정욱	하은지	허성혁	황인성
조준영	청솔디자인	최정인	하재형	허수영	황정혜
조준희	체감한의원	최정현	하진	허영진	황조혜
조중환	최광준	최정혜	하창현	허유진	황준혁
조진성	최규태	최제인	하태형	허윤호	황지홍
조진연	최규현	최종의	하혜미	허윤홍	황재영
조창오	최기원	최종필	한관희	허인용	황호원
조창현	최나예	최주호	한국순대	허재민	황희연
조철민	최대호	최준원	한남규	허정일	황희진
조철호	최덕현	최준혁	한덕영	허창석	휘경인삼사우나
조한무	최동휘	최준호	한명남	현대치과의원	
조현서	최만수	최지선	한명석	현은지	
조혜진	최명실	최지수	한미연	호텔관광대학 관광학과	
조희원	최문선	최지연	한미영	홍경희	
주서령	최문식	최지웅	한미혜	홍명희	

## 경희 후원의 집

‘경희 후원의 집’은 경희대학교와 기부 약정을 맺고,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며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는 지역사회 상가 커뮤니티입니다.

(주)설아래	샤브샤브 흥학식당	나비발레스튜디오
8번가	상그라	달콤한위로 경희대 국제캠퍼스점
Haru&Aki Flowers	싸왓디타이	마루테이블
경희화원	아지트K	맘스터치 수원경희대점
고양이를 따라와	에잇올리	명륜진사갈비 용인경희대캠퍼스점
골목한식	온정손칼국수	복비뇨기과의원
광주회관	유성관	서천세어하우스
국민부동산	이문동커피집 크럼블로스터스	소담샤브칼국수
극락돈	이상규(갈비명가 이상)	송탄진대광부대찌개
나엘상사	잇츠소유(경희대 본점)	연우피앤씨
노바이탈리아노	참이맛 감자탕	영통복요리
다우전자(주)	청솔디자인	영통원탑정형외과의원
달콩	태양스튜디오	오르다치과의원
두레박	푸드스토리	오피스넥스
등촌칼국수(경희대점)	한국난원	윤빛한의원 수원영통(舊 경희수한의원)
마구로준	허브약국	장터밥상
메모아르	화이트캣	착한낙지
반월	휘경인삼사우나	컴포즈 경희외국어대학관점
부록카페	3월3일	컴포즈 경희전자국제점
비반트	경희요기필라테스	컴포즈커피 경희대국제캠퍼스기숙사점
사갈의마을	김앤박이비인후과	한국순대

특별한 후원의 집을 기억합니다.



**주호식당**

2019년 12월 ~ 2025년 9월

경희 후원의 집으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따스한 마음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뜻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 아레테클럽 교원

아레테클럽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에 참여한 교원 커뮤니티로, 총 3천만 원 이상 기부했거나 약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교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름다운 나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은 아레테클럽에는 해마다 많은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캠퍼스

#### 간호과학대학

강영미 김연정  
김주희 라인서  
박선희 석소현  
송민경 신성희  
신현숙 신혜숙  
윤은경 이지아  
임여진 장미희  
장애경 정연희  
최지선 한정원  
황원주 황지인

#### 경영대학

권오병 김민경  
성주호 윤여준  
장해정 정민영  
최연식 황문호

#### 경영대학원

송상호

#### 공공대학원

손혁상

#### 교육대학원

이은배 조영하  
지은림

#### 국제교육원

조현용

#### 무용학부

김영미 김지영  
안병주 윤미라

#### 문과대학

김종복 김중섭  
민유기 박인철  
박진빈 유원준  
이정빈 이주희  
정지호

#### 미술대학

나형민 노진아

####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최광준

#### 생활과학대학

김선주 김연하  
김준태 서소정  
송화경 이현정  
장경은 장유혁  
정소진 정윤주  
제유진 조지영  
주서령 한명주

#### 약학대학

김남중 류종훈  
문규호 서혜선  
이경태 이종길  
인경수 임동순  
장영표 정은경  
최진우

#### 음악대학

강석희 김희라  
양고운 윤진원  
이아경 이윤정

#### 의과대학

김도경 김수중  
김우식 김원  
김진배 동석호  
류재홍 박은정  
반건호 오승준  
우정택 유달라  
윤성상 윤태영  
이상열 전숙  
정민형 조운제  
조정제 허영범

#### 이과대학

구현주 권장혁  
김윤희 김은영  
김주훈 김한규  
박규창 서민철  
안정선 유건호  
이제승 이호석  
임준원 전종득  
주성재 진성훈  
황철수

#### 자율전공학부

이정희

#### 정경대학

김정부 김학민  
한균태

#### 치과대학

이효설 홍성진

#### 한의과대학

고성규 김봉이  
김호철 남동우  
박성규 박정미  
배현수 백유상  
서병관 심범상  
이수경 임사비나  
장규태 장문석  
조성훈 차웅석

#### 호텔관광대학

구철모 김명자  
김철원 배소영  
이계희 이규민  
이충기 정남호

#### 후마니타스칼리지

정복철

#### 인문융합연구센터

정효선

### 국제캠퍼스

#### 공과대학

김선국 오종민  
유기영 이용택  
장윤석 정범진  
정원석 최진환

#### 전자정보대학

김진상 박욱  
한승무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박광훈 허의남  
홍충선

#### 응용과학대학

이동훈

#### 생명과학대학

강동호 김미주  
김해영 손문기  
손영숙 유정묵  
정기홍

#### 외국어대학

김영주 이선이  
황수현

#### 예술·디자인대학

이철희

#### 체육대학

여홍철 오경록  
이준희 전익기  
조성균 한광령

#### 체육대학원

김도균 성기석  
한진욱

#### 동서의학대학원

박유경 유재환

## 쿠밀리(KHUmily) 소개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서포터즈 '쿠밀리(KHUmily)'는 경희대학교를 사랑하는 가족 정신으로 하나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희대학교(KHU)와 가족(Family)의 합성어로 만들었습니다. 쿠밀리는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캠페인을 홍보하고 대외협력처 및 교내외 행사를 지원하며 '후원의 집'을 탐방·소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서울캠퍼스(쿠밀리 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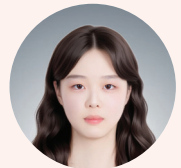


#### | 김희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24학번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24학번 김희원입니다. 이번 쿠밀리 6기로 활동하며 나눔과 기부의 가치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학생의 시선에서 발전기금의 의미를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기금이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심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4학번

안녕하세요. 심현진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은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과 연결 속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밀리로서 경희대학교의 가치를 쉽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사람과 경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자가 되고자 합니다. 동문, 지역사회, 기업, 국내외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의 가치를 확장하고, 경희대학교가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연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 | 오채림 경영대학 경영학과 24학번

안녕하세요. 쿠밀리 6기 경영학과 24학번 오채림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움과 함께하는 가치를 높이는 경희대학교의 발전기금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쿠밀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연경 경영대학 경영학과 24학번

안녕하세요. 쿠밀리 6기 신입부원 유연경입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마음이 모여 학교의 내일이 된다는 점에서 발전기금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의미를 많은 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아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 | 이정민 정경대학 미디어학과 21학번

안녕하세요. 쿠밀리 6기로 활동하게 된 미디어학과 21학번 이정민입니다. 쿠밀리라는 이름처럼 학교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동문분들과 후원의 집 대표님들의 따뜻한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기부 이야기에 생기를 더하고 달기 쉬운 콘텐츠를 만들어, 기부 문화와 그 가치가 경희대에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채은 경영대학 경영학과 25학번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25학번 이채은입니다. 경희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쿠밀리'의 일원이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기부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정성이 우리 대학의 미래를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나눔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부자와 학교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임선우 미술대학 한국화과 24학번

안녕하세요. 쿠밀리 서포터즈 한국화과 24학번 임선우입니다. 후원의 집이 담고 있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문화가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희와 함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쿠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최혜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24학번

안녕하세요. 대외협력처 서포터즈 쿠밀리 6기 최혜원입니다. 발전기금 캠페인 홍보와 교내의 행사 지원, 후원자의 집 탐방 등 쿠밀리의 다양한 활동에 임하면서 경희대학교와 후원자들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하은채 정경대학 미디어학과 24학번

안녕하세요. 미디어학을 전공 중인 쿠밀리 6기 하은채입니다. 학교를 다닌 지난 2년간 경희가족을 하나로 연결하고, 더 나은 경희를 위해 노력하는 대외협력처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곳의 서포터즈로서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캠퍼스(쿠밀리 11기)



### | 김연길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2학번

안녕하세요. 쿠밀리 11기에 합류하게 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2학번 김연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희를 빛내주시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눔이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에 동참하며, 기부자들의 진심과 학생들의 감사를 잇는 따뜻한 소통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쿠밀리와 함께 호흡하며 기분 좋은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남수현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23학번

안녕하십니까. 쿠밀리 11기로 활동하게 된 태권도학과 23학번 남수현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경희의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쿠밀리 11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문서영 생명과학대학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23학번

안녕하세요.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23학번 문서영입니다. 경희대학교를 아끼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학우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쿠밀리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심재현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26학번

안녕하세요. 심재현입니다. 쿠밀리로 선발되어 매우 뜻깊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신입생으로서 아직 낯설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희대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 | 이한나 생명과학대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2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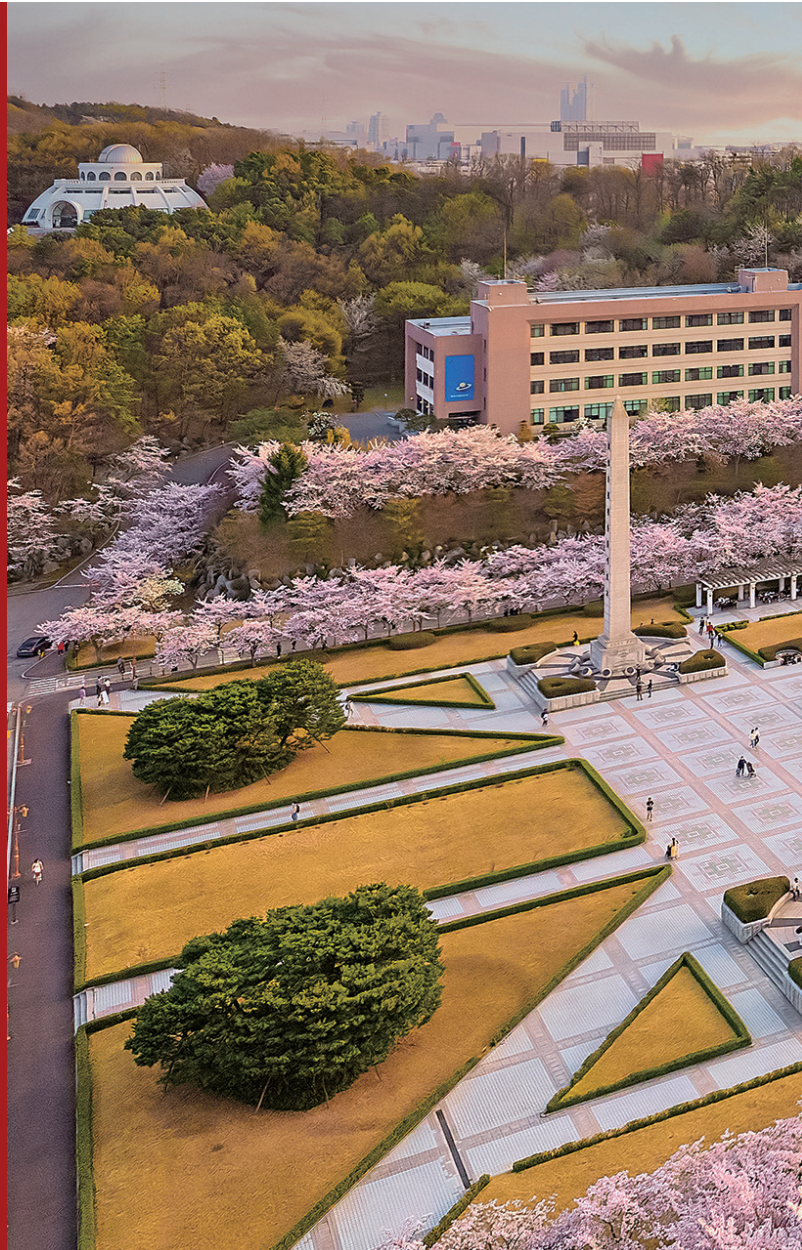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이한나입니다. 경희와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쿠밀리 서포터즈로서 대외협력처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후원자의 집 및 발전기금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살려 경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쿠밀리로 활동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경희대 대외협력처의 얼굴로 활동하게 된 만큼 열심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 | 조유진 국제대학 국제학과 24학번

안녕하세요. 국제학과 24학번 조유진입니다. 쿠밀리 11기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기부'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저에게도,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뜻깊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를 여는 오늘의 가치



1949년, 경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겹기만 했던 신생 대학.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희는 무(無)에서 유(有)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경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창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입니다.

'대학다운 미래 대학 건설'을 꿈꾸는 경희의 담대한 도전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대학·학과·전공 발전기금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기부자님의 뜻에 맞는 곳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과대학 ANNEX 건립 특별기금

미래 공학의 중심이 될 공간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공과대학은 공학관 분관(ANNEX)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학관 분관은 첨단 미래교육을 위한 융합교육·연구 공간과 구성원의 교류를 촉진하는 공용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학관 분관은 후배들에게는 새로운 기능성의 문이자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며, 동문들에게는 모교와의 또다른 연결점이 될 것입니다.

공학관 분관 입면 사진



공학관 분관 3D 단면도



기부  
참여하기



## 토닥토닥 든든밥상

따뜻한 학식 한 끼로 후배들을 응원해 주세요.

고물가 시대에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토닥토닥 든든밥상' 캠페인은 후원금으로 학생들에게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만 원의 기부로 4명의 후배들에게 든든밥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든든밥상 학식 지원 행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되며, 이를 위한 기부 캠페인은 연중 상시 운영됩니다.

# 토닥토닥

# 든든밥상

학식 한 끼로  
후배들을 응원해 주세요!

2만 원의 기부로  
4명의 후배들에게  
든든밥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 1 지정발전기금 선택
- 2 기부하실 곳 작성에 "든든" 단어 입력
- 3 인적사항 및 결제번호 입력

Seoul

서울캠퍼스



학식 지원 행사 개최 일시

매년 6월 / 12월

토닥토닥 든든밥상 기부 캠페인은 연중 지속됩니다.

학식 지원에 동참해 주신 선배님께서는  
경희대학교 기념품과 후배들의 감사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Global

국제캠퍼스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C 02-961-0932~3



국제C 031-201-3190~1

## K-Stipend 동행 캠페인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Stipend 동행'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안정적인 생활비(Stipend) 지원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KHU Future Scholar'를 양성해 글로벌 과학 혁신을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목표: 미래의 노벨상을 향하여(국내 Top3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 비전** 'KHU Future Scholar'를 양성해 글로벌 과학 혁신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 과제**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연구 몰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해결책** 안정적인 생활비(Stipend) 지원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KHU Future Scholar 육성 계획

#### 석사 과정 지원



우수 학부생의 진학 유도를 위해 최상위 20명을 선발합니다.

월 **130~150**만 원

생활비 고정 지급

교내 석사 1인당 평균 지급액(약 125만 원)을 상회하는 최고 수준 대우

#### 박사 과정 지원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발합니다.

월 **150~200**만 원

생활비 고정 지급

외부 과제 수주 부담 없이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

# 기부자 예우

KYUNG HEE UNIVERSITY



##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경희 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품격 있는 예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분	예우 내용	매그놀리아 클럽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창의 1억 원 이상	창조 3억 원 이상	청운 5억 원 이상	선승 10억 원 이상	평화 20억 원 이상	고향 3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	○	○	○	○	○	○	○	○
	감사패 증정		○	○	○	○	○	○	○	○	
특별 초청	교내외 공연 및 만찬 등 행사 초청	○	○	○	○	○	○	○	○	○	
명예 헌정	명예의 전당	○	○	○	○	○	○	○	○	○	
	기금 명칭 부여			○	○	○	○	○	○	○	
학교 시설 이용 편의	평생 도서관 출입증			○	○	○	○	○	○	○	
	평생 차량 출입증			○	○	○	○	○	○	○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프로그램 할인	본인 70% 직계 존비속 30%		본인 100% 직계 존비속 50%		본인 100% 직계 존비속 70%					
의료 예우	VIP 진료 서비스			○	○	○	○	○	○	○	
	의료비 감면	본인 10%	본인 30%	본인 50% 배우자 30%	본인 70% 배우자 50%	본인 100% 배우자 50%	본인 100% 배우자 7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자녀 100%	
		10년		20년	본인·배우자 평생(자녀 20년)						
	진찰료	본인 10%	본인 3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자녀 100%	
	건강 검진권 증정	1회(최초) (의료기관 기준 적용)		기본 검진권 2매	150만 원 검진권 2매	200만 원 검진권 2매			300만 원 검진권 2매		
		추가 지원 (본인 및 배우자)		기본검진권 2매 1회 제공	기본건강검진권 2매 5회 제공 (2년 주기)			기본건강검진권 2매 10회 제공 (2년 주기)			
			타인 양도 불가 / 10년 이내 지급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경희의료원 40% 강동경희대병원 20%		무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할인은 상조회사 가입 시 제외									
명칭 부여 네이밍	로비 명패	강의실·실험실 명칭								건물 명칭	
	건물, 강의실, 회의실, 기자재 등에 기부자님의 소중한 귀한 뜻을 담아 드립니다.										

※ 현금 기부 기준(현물 기부 예우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기부자님 명의의 장학기금을 운영해 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학교 내의 Hall of Fame(고액기부자 벽화)에 성함을 새겨드립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감사패를 증정해 드립니다.



##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경희에 큰 사랑을 전해주시신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예우,  
품격 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소중히 보답하겠습니다.

### 아너스클럽 회원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Magnolia Honors Club)은  
경희에 큰 사랑을 보내주시신 분들을 위한  
경희만의 특별한 기부자 클럽으로,  
'경희 100년'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고자 발족했습니다.  
경희가 명문사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학교 모금사업에  
1억 원 이상 후원하신 기부자님께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원께서는 이에 걸맞은 특별한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 예우 프로그램

품격 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아너스클럽의 멤버십을 누리십시오.

기부금 전달식 개최

총장 초청 오찬·만찬 초대

명예의 전당 Donor's Wall,  
공간 네이밍 헌정

신규회원 건강검진권 제공

특별인터뷰 기사 게재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

거교적 특별행사, 음악회, 문화탐방 등

의료비 감면

VIP 진료 서비스

## 기부 참여 안내

### 기부 방법

#### 현금 기부

일시 및 분할 납부, 자동이체 정기 후원 (월간·연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기부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출연 금액을 책정 하며,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기부

주식 출연이 가능하며, 상장 주식은 증가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 해외 기부

경희국제재단(KHIF)은 미연방국세청 면세 승인기관으로 경희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는 미국 납세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산 기부

유산 전체 또는 특정 재산으로 출연 약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 재산을 출연하실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유언공정증서 작성, 신탁 상속 계약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약정 방법

#### 일반 약정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문자 (사진 촬영 후 1599-3892로 전송),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전화 및 방문 약정

전화하거나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약정** 홈페이지([give.khu.ac.kr](http://give.khu.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캠퍼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108호

전화 02-961-0932~3, 2371      팩스 02-961-9400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mailto:give@khu.ac.kr)

#### 국제캠퍼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본부 103호

전화 031-201-3190~1      팩스 031-201-3192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mailto:give@khu.ac.kr)

## 납부 방법

### 무통장 입금

편하신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278-810023-98605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428-141962-19304

### 교·직원 급여공제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직원은  
급여공제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CMS)

약정한 은행 계좌에서 지정 기부금액이  
(매월) 납입됩니다.

###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기부자가 요청하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 약정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경희국제재단(KHIF)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해외 거주자께서는 대외협력처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b>KHIF</b> 뉴욕 본부	Sang Surk Noah, Chairman of BOD 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 520 8th Ave Suite 2202 New York, NY 10018, USA  <b>Tel</b> 212-736-2888 (Office) 201-647-8177 (Cel)  <b>E-mail</b> noah@khif.org	Woori america Bank 1250 Broadway New York, NY 10001, USA  <b>Account Number</b> 107000457  <b>Routing Number (ABA)</b> 026007443
<b>KHIF</b> LA 본부	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 LA Liaison Office 625 Columbia St. Brrea, CA 92821  <b>Tel</b> 718-551-8122 <b>Fax</b> 714-447-9039	Woori america Bank 1250 Broadway New York, NY 10001, USA  <b>Account Number</b> 107000457  <b>Routing Number (ABA)</b> 026007443



서울캠퍼스

후원 참여하기

온라인 결제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국제캠퍼스

#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약관

작성하신 약정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후 **1599-3892** 로 보내주세요. (문자 수신 전용)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 (택1)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휴 대 전 화	E-mail		
	주 소 우편물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본교와의 관계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수/직원 <input type="checkbox"/> 부속병원/병설학교 <input type="checkbox"/> 기업/일반인		

약 정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20 년 월 일 납부 (예정) / 금( )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원씩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서울캠퍼스 <input type="checkbox"/> 국제캠퍼스
	기부금 용도	<input type="checkbox"/> 경희발전기금 * 경희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기금사용용도 : ( ) *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사유 자유기재	
기부추천인		

기 부 방 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278-810023-98605 예금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428-141962-19304 예금주 경희대학교	
		입금자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입금자명: ]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CMS) 매월 25일 출금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예금주명: ]	예금주 생년월일: ]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사번	* 경희대학교, 경희의료기관 교직원만 해당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금으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서울캠퍼스 Tel 02-961-0932~3, 2371 Fax 02-961-9554 우편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관 108호  
국제캠퍼스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 우편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대학본부 103호

홈페이지 <http://give.khu.ac.kr> E-mail [give@khu.ac.kr](mailto:give@khu.ac.kr)

약관



경희 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속 가능한 문명건설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 대학'  
경희의 길입니다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

### 서울캠퍼스

Tel 02-961-0932~3      Fax 02-961-9554  
우편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관 108호

### 국제캠퍼스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  
우편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대학본부 103호

---

홈페이지 <http://give.khu.ac.kr>    E-mail [give@khu.ac.kr](mailto:give@khu.ac.kr)    문자수신전용번호 1599-3892(약정서 사진 전송)